

北도발 차단 근본대책 세워야 한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제1비서 간의 기 싸움도 일단 박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8월 4일 지뢰도발 사태 이후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은 황급하게 고위급회담을 열었고, 회담은 8월 25일 6개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종료되었다. 북한은 대북방송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다소 애매한 표현이지만 '유감'을 표시했고, 한국은 이를 사과로 인정하고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11년 만에 재개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다시 중단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당연히, 이는 종전과는 다른 단호함을 보여준 군, 안보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리 군의 조치들을 뒷받침한 박근혜 대통령,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정치권, 호국의 지를 보여준 젊은이들, 북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중국, 결연한 한국방어 의지를 보여준 미국 등 동맹국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였다. 이렇듯 한국은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위기국면 전환'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남북상생 구도를 열어간다는 보다 큰 목표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 회담이 거둔 성과보다는 남은 과제들이 훨씬 더 막중하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게 있어 휴전선 지대의 대북방송은 거의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한국은 상호간 비방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2004년 남북 군사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 수단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GPS 교란, 해킹 등은 멈추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은 2004년 군사회담을 '실패한 협상'으로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지뢰도발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후 한국군이 대북방송을 전격 재개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한국은 이 소중한 전략자산을 포기할 때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지도 못했고 사이버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한국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얻어내기 위해 힘들게 재개한 대북방송을 다시 포기한 것이다. 이렇듯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대가 '성공한 협상'이 되려면 북한의 무력도발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고위급회담이 군에게 남긴 과제는 막중하다. 이를 위해 군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을 되돌아보고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할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발을 응징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 없어

우선, 군은 "도발을 응징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고전적 진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건대,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응징한 적이 없다. 60년대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해 한국은 예비군 창설이라는 수세적 대응에 그쳤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서도 응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 80년대 랑군 아웅산 폭탄테러와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5·24 경제제재라는 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그해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에도 '비례성 원칙'이란 교전수칙 하에 조심스러운 대응포격을 가했을 뿐 이렇다 할 군사적 응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북한은 1970년대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남침용 땅굴을 파고, 19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 서명 이후에도 땅굴을 파고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을 침투시켰으며, 서해에서 끊임없는 해상도발을 자행했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인내' 아니면 '확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

南北협상 남은과제

특별기고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반드시 응징" 말뿐아닌 실행필요

스텔스機 동원 '斬首전략' 등 검토를

強軍육성 위한 예산등 적극 뒷받침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군이 천명했던 '거부적 억제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는 "북한이 도발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강요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한다"라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실천하지 않음에 따라 억제효과를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수단까지 확보함에 따라 '핵그립자'를 드리운 채 노골적으로 재래도발을 저지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응징에 충실했어야 했지만, 우리군은 그러지 못했다. 천안함 폭침도발시 저들의 간담을 썩히게 하는 응징을 가했더라면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은 없었을 것이고, 연평도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번 지뢰도발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176발을 포격했는데 이중에서 연평도에 떨어진 것은 44발이었다. 한국군은 이것의 두 배 정도인 80발을 쏘았다. '비례적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이다. 현장에 출격한 F-15 전폭기는 합참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지 못해 연평도 상공에 머물다가 그대로 회항하고 말았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6·25 전쟁 정전 이래 처음으로 북한군이 한국 영토에 포탄을 쏜 사실상의 전쟁행위였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자세는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북한이 한국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지뢰도발 사건을 '반드시 응징하는 군대'로 재탄생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경시하고 함부로 위배하는 북한의 습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군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북한군이 도발하면 도발원점을 향해 응징해야 하고 도발원점이 불분명할 때에는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여타지역의 표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 응징의 표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스텔스기를 이용한 참수(斬首)전략을 수립하여 도발자 개인에 대한 징벌도 가능해야 한다.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한 과제는 더욱 막중하다. 동원예비군을 유사시 즉각 전투사단으로 돌변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하고, 피침 즉시 북한의 후방을 때리는 육군특수부대를 증강하고 곧바로 평양을 압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해병상륙부대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첨단 재래무기들을 동원하여 대량보복을 가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응징보복용 무기들을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과 해저에 분산 배치하는 '한국형 3축체제' 같은 것을 구축해야 한다.

安保엔 與野 없어...정치권 무거운 책임 느껴야

이번 지뢰도발 이후 한국의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과거와는 많이 달랐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으며, 사상 최초로 야당이 국회 국방위에 규탄 결의문을 제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정치권은 북한, 안보, 통일 등과 관련하여 심하게 분열했고, 안보사태가 발생하면 군을 질책하는 데에는 신속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일방적으로 군에게 질책이나 과부여도 되는 여유로운 입장에 있지 않다. 북한이 한국을 앞잡아보고 함부로 도발하는 현실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경제기적을 통해 일구어낸 경제번영을 지키고 국민민복을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떻게든 확전이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설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전쟁은 대비할수록 일어나지 않는 법이며, 전쟁을 잇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된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고바우 만평'은 9면에 옮겨 실습니다= 편집자〉

對北 정보기관 무력화 시도 안된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고대(古代) 그리스에서 개발된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30세기의 시간이 경과한 오늘에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경쟁적으로 완성시키려 애쓰고 있는 보편적인 정치제도이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제도이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다는 것”(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e others.)이라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어록(語錄)이 이를 웅변(雄辯)해 준다.

“민주주의” 표방하며 민주주의 파괴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내재(內在)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민주주의’를 역으로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데 대한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1935년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이끄는 나치당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진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독재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악명 높은 제3제국(Third Reich)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그 뒤 세계가 경험한 것은 인류의 비극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Holocaust)의 참화가 그것이었다.

1949년 서독(西獨) 건국주역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같은 ‘민주주의의 내파(內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abwehrbereite Demokratie)다. 서독의 건국주역들은 “민주주의는 지키지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단죄(斷罪)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국가관리의 기본 철학으로 정립한 것이다. “자유(自由)의 적(敵)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지구상에서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으로 등장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공격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여기서 등장한 전술이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이다. 이 전술은 민주주의의 다양성(多樣性)에 편승하여 민주 사회를 ‘핵심 세력’과 ‘주변 세력’으로 양분시켜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주변 세력’과 제휴, 야합하여 ‘핵심 세력’을 고립시켜 포위함으로써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 사회를 전복시켜 파괴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주변 세력’과의 야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간판이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사이버 민주주의였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은 오랜 기간 지하당 공작, 간첩 침투, 무력 도발 등의 방법을 배합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고 있다. 사이버전의 수행이 그것이다.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역설적으로 북한에게 사이버전 수행에 역이용되어 새로운 도발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인터넷 보급률 93%, 평균속도 세계 1위, 영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인터넷 사용 인구비례 등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사이버 인프라를 역이용하여 치열한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하당 공작’이라든가 ‘간첩 납파’와 같은 고위험성, 고비용성 공작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게는 전파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 각 영역에 포진하고 있는 ‘종북 세력’과 공공연하게 연계하고 제휴하면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을 지배, 통제하고 사이버 해킹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기간 시스템을 파괴할 뿐 아니라 SNS 통신망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구나,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EMP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이의 개발에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 사이버전 요원 10년새 60배로 증원

최근 수년 간 북한은 사이버전 수행 능력의 대대적 증강을 서둘러 왔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성’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의 한 사람인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 국제대학원의 알렉산더 만수로프(Alexandre Mansourov) 교수는 “지난 2004년 100명에 불과했던 북한의 사이버전 전문요원이 2014년에는 5,900명으로 증가되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와 시급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이 같은 전파전 전개로 구체적 피해를 입기 시작하지 오래다.

특별기고



이동복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5대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국정원 해킹장비 도입 논란 삼는건 어불성설

민주사회 전복 내부갈등서 비롯

北의 사이버 해킹 대응수단 어려워져

국가안보 구명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하여 은행과 언론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다운되고 심지어 국가 및 군 기관의 전산망이 해킹으로 마비되는 사례가 시간이 흐를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벌이는 이 같은 사이버 도발이 모두 철저한 비밀의 베일 속에 은밀하게 수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맹방들인 미국 등 자유민주국가들도 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들 다른 나라들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른바 ‘종북(從北)’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蔓延)되어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대한민국 내의 ‘종북’ 세력과 연대(連帶)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내재(內在)하는 취약점(脆弱點)을 공략(攻略)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북한과 대한민국 내의 ‘종북’ 세력들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으로 혼동(混同)시키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이용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항 수단인 국정원의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似而非) ‘민주주의’ 장치들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堡壘)인 국정원의 기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5개 국가서 도입... 시비대상된 건 한국뿐

이번 논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진실은 세계적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하여 공개된 대로 이명박 정권 때였던 지난 2012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사 제품인 RCS 해킹 프로그램 20회선을 도입했다는 사실뿐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 장비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RCS 장비는 대한민국 외에도 35개국 97개 국가기관이 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이 장비를 둘러싸고 시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 진 적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정원이 이를 도입한 것이 무엇 때문에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원이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전력(前歷)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번에 도입한 RCS 장비를 민간인 감청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워 국정원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사실상 전수(全數) 공개 점검하자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 야당 인사들은 그동안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의 검증 과정에서 국정원이 소위 ‘재미 과학자’인 ‘안수명’ 박사를 상대로 문제의 장비를 사용하여 통신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식의 논법으로 마치 국정원에 의한 해외 민간인 교포에 대한 통신감청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안수명’이라는 미국 거주 교민은 이미 ‘대공 용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감청은, 만약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야당 의원들과 언론이 간과(看過)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 같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정원의 기능상의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뿔어지는 국가안보의 구멍은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것이다. 북한을 원점(原點)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최근 날이 갈수록 가중(加重)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국정원을 상대로 “좌절되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국가안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는 것을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무]

벼랑의 한국외교 “정세는 찬란하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일본 아베 총리가 8월 14일 발표한 담화는 미리부터 세계의 주목 속에 있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지 70년 만에, 지난날의 죄과를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여 새로운 미래지향을 해보이겠다고, 미리부터 온 세계에 떠벌였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로서도 아베가 스스로의 국정지표로 내걸었던 ‘전후레짐(체제)으로부터의 탈각이 이 담화로 종착역을 맞이해 보일 것’이라고 무게를 두고 있었다.

교활한 수법으로 세계 앞에 한국 무시

그런데 세계의 면전에서 아베가 담화를 통해 드러내 보인 자세는, 미국을 추켜세우고, 중국에 아양 떨고, 한국을 강그리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이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등으로 외교관계를 암초에 얹으면서까지, 관계수복의 전제조건으로 걸면서까지 요청했던 역사인식과 위안부문제 해결을 아베담화는 냉혹하게 무시하곤 막장포즈를 취하고 나왔다. 아베의 정치계산과 역사 감각 앞에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과거사의 죄업을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은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시해 여타국에 대한 저자세와 대비시킴으로써, 아베는 아주 교활한 수법으로 한국외교를, 나아가서는 한국이란 나라를 세계 앞에 자기류로 모멸해 보인 것이다. 아베는 지금 한국한테 교만을 떨고 있다.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립한 일본을 미국의 ‘속국’이라 하는 사람들은 일본 내외에 많다.(대표적으로 현대일본연구의 세계적 대가 존 다우어). 일본의 외교와 전략을 장악해 온 미국에의 추종을 당연시 하고 정치적 자산으로 아는 것이 집권층에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평균이었다 할 것이다.(당연히 對美 자주과와의 갈등이 일본정치사에 잠복해 있었다.) 이 같은 일본에서 아베총리는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의 제약을 박차고 집단자위권 행사체제를 이룩해,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환골탈태해 가고 있다.

아베의 전쟁국가노선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지만, 일본 최대·최강의 정치‘뺑’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아베는 흔들리지 않는다. 더욱 중국이 대두한 현하의 동아시아 대 전환기에 미국은 일본을 거의 동격으로 끌어올려, 미일동맹을 압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4강이 주목해 마지않는 전략요충인 한반도에 출병할 수 있는 근거까지 아베는 손에 넣은 것이다. 골수의 군국주의자 아베가 어떻게 기고만장하지 않겠는가. 아베, 오늘의 교만의 연원은 이 부근일 것이다.

한나라의 주권을 약탈하고 그 영토를 식민지로 하는 것은 무릇 모든 침략의 최고 형태이며 완결형이라 할 것이다.

한국외교당국 상황인식 전환 필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여 태평양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앞 10년간은 중국을 침략하고 있었다. 그 시발인 31년의 만주사변을 미국의 전쟁관료들이 태평양전쟁의 기점으로 알고 도쿄전범재판의 소추상한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찰역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 관료들의 오늘에까지 문제를 남긴 치명적인 몰 역사성의 경우이다.

식민지 조선에 진치고 있던 일본군대가 압록강을 월경하며 만주침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중국침략 기지였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결행단계에서, 미국의 실력이 겹났던지, 미국하고 전쟁 회피교섭을 8개월간이나 벌였다. 미국이 요구한 최저선은 일본이 침략한 중국에서 물러가라는 것이었다. 일본은 중국침략에서 물러나기 싫어 진주만을 기습하여, 세계와 전쟁했던 것이다. 아베 총리가 패전 70년에 침략의 죄업을 반성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죄업의 원점인 한국은 세계 앞에서 눈감아 버렸다. 이것이 아베정부와 일본이 내걸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외교수법이란 말인가.

한국외교의 벼랑은 어디에 있는가. 군국주의자 아베가 그 속성을 한국을 향해 노출했다고, 한국외교의 벼랑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외교당국이 아베로부터의 수모체험을 직시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시할 줄도 모르는 이류적 상황인식 자체에 있다. 수모체험의 직시에서만이 역사의 추동력과 설욕의 에너지는 작동되는 것이다.

벼랑은 대도약의 찬스일 수도 있다. 현하의 상황전망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표현이 있다. “천하대란(天下大亂)이나 정세는 찬란하다(splendid)”. 이는 모택

특별기고



허문도

- 전 통일부 장관
- 전 청와대 정무제1비서관
- 전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日아베담화 한국모멸美지지 업고 교만

朴대통령 先見외교보좌진서 못따라가

지정학적 전략균형점 살려나가는게 관건

동이 한 말이다. 1971년 미국의 키신저가 중국과 수교하고자 북경을 비밀방문 했을 때, 주은래에게 내린 지침 속에 들어 있다. 모택동(毛澤東)은 이 같은 정세전망을 미국 측에 과시해 보이라고 일렀던 것이다. 그때 중국은 아직 문화대혁명 속에 있었고, 공산대국 구소련의 침공위협 속에 있었으며, 사회주의 경제는 바닥이었다. 이 같은 ‘천하대란’의 한복판에서 키신저를 앞에 두고 중국의 지도부가 피력해 보인 것은 온 세계를 적으로 한 대결에서도, 중국은 스스로를 지켜낼 전략공산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아베의 교만 앞에서 외교당국이 한번 다져야 할 것은 상황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다. 먼저 전환기 인식이다. 중국이 대두하고 미국이 재정적으로 기울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전환기에 일본은 전쟁하는 나라가 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상황을 한국 쪽에서 압축하면 ‘천하대란’의 상이라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외교가 발상을 바꾸기만 한다면, 전환기 상황에서 한반도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중핵성에 눈이 간다면, ‘정세는 찬란하다’는 것을 모를 수 없을 것이다.

창조적 외교 결실의 계절 맞을듯

미국을 다녀온 박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고, 중국에 먼저 간데서부터 한일관계는 끌끄러워졌던 것을 돌이켜 볼 것이다. 대전환기의 한복판에서 박대통령이 보인 외교행보의 혁명적 선견성을 외교당국이나 보좌진은 따라가지 못했다. 외교당국은 대통령의 선견성을 적극적 논리로 국민 앞에 풀지 못했고, 한반도 위에 역사적으로 드물게 찾아온 지정학적 전략찬스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한·미·일 냉전구조 밖으로 운신을 못했다. 그동안의 국력 차의 반영이거나 한 것처럼 대통령의 외교 감각이 과거 지향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일본쪽 홍보논리가 모든 한·일 관계 전문가라는 자들의 입과 국내 미디어를 통해 한국 내에 차고 넘쳤던 것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 붙여야 한국이 산다는 구한말의 일진회 풍조와 닮아 있다. 그 결과가 70년 담화에서 아베의 교만으로 드러난 것 아닐 것인가.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드물게 한반도에 찾아온 전략균형점을 깊이 자각하는 일이다.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성은 국가자주에 짐을 안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

계경제 문명의 중심이동과 함께, 동아시아가 맞이한 대전환기는 반도위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전략적 균형점을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부터의 자주·자존의 요체는 이 균형점의 지정학적 유연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이다. 역사적 악연을 청산 못하는 약삭빠른 일본이 벌써 미국을 업고 지정학적 유연성의 일부를 잠식하고 있다.(유사시의 반도 출병권 확보, 이번 가을에 약속된 제반 군사협력 등).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 전략균형점을 딛고 서서, 평화 조율자로서의 사명을 세계 앞에 천명해 보이는 것이다. 상대는 안보의 기반국가인 미국과 제1의 교역대국인 중국일 뿐이다.

이번 가을, ‘지금은 돌아와 거울 앞에 서게 된’ 한국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어있다. 창조적 외교가 계절의 꽃 국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정세는 찬란하다’ 할 것이다. ☞

축 大韓言論 창간 38주년



司法府 신뢰추락 常識으로 거듭나라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대법원 홈페이지에는-“...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소통 표어가 있다.

42개국 중 39위... 정부 신뢰도는 26위

그러나 국민은 법원이 자신 속으로 들어왔다고 느끼진 커녕 사법 불신(不信)이 참혹하기 그지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월 9일 발간한 보고서를 빌리면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에 그쳤다.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 각각의 83%에 대비한 낙차는 말할 나위 없고, OECD회원국 평균 54%의 절반이라는 사실까지 두루 민망하다. 또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로 한국 밀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가 있을 따름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정부 신뢰도는 34%로 OECD 평균 41.8%를 역시 크게 밀돈다. 조사대상 41개국 중 26위여서 그래도 사법 신뢰도보다는 다소 나은 편이다. 그렇다고 ‘그 정부 그 사법’라는 난형난제(難兄難弟)를 가리키는 힘들다.

OECD 보고서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국가별로 1,000명씩 설문 조사해 작성한 만큼 그리 객관적이지 않다고 변명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한 법원 관계자가 “설문 원문을 찾아본 결과 사법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과 검찰, 관련 법조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런 핑계를 애써 찾는 것도 누워 침 뱉은 식이다.

더 심각해 가위 치명적인 독(毒)은 달리 있다. 불신의 원인과 배경은 돈과 힘, 연고에 휘둘리는 사법 때문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진정으로 평등하다고 믿게 하는 것이 해법인 줄이야 다들 웬만큼씩은 헤아리고 있다. 그런 것을 가늠하기 위해 무슨 대단한 식견이 필요할 것은 아니다. 상식(常識)으로, 또 체감(體感)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법조인들이 법조 밖 일반인의 이 상식, 이 체감을 문외한(門外漢)의 시기나 질투, 막무가내 트집잡으로 얹잡아 내려다본다는 사실이다. 사법은 그들만의 영지(領地)라 여겨온 독선(獨善) 바로 그것이다.

그들만의 사법, 그 독선을 예증하기 위해 또 대단한 식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월 16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법조 안팎의 자못 시끄러웠던 상황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이 7월 14일 각계의 추천과 당사자의 심사 동의를 받아 예비 후보자 27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널리 적임자를 고른다는 외양을 갖췄다. 그러나 여느 곳과 달리,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참모가 누구 또 누구를 추천하고 말고 할 일은 아니라는 게 상식이다. 굳이 권력분립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그 참모가 나서 그 의중을 던지시라도 비쳐선 안될 일이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2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대통령의 법률참모 ‘법무부장관’을 들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1년 7월 18일의 일이지만 그 이전에 대법원 내규에 근거를 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도 역시 법무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받들었었다. 왜 법원 내부 그

특별기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OECD 보고서

국민신뢰도 27%

獨善이 빛은 결과

대법관 인선

상고법원 추진 논란

국민 체감과 거리

어디서도 대법관 후보를 고르는데 법무부장관의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는 상식 차원의 반문이 나오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선임 대법관’이 당연직 위원인 것도 어색하다. 8월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 다시 말해 자신의 후임을 고르는 그 회의에 선임 대법관의 자격으로 참석한 민 대법관은 다른 법도 아닌, 법원조직법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 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기 전엔 그렇지 않았다. 대법원의 대법관제청자문위 내규는 선임 대법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를 붙여 임기만료 예정자는 제외했었다. 그 내규가 2011년 9월 1일 발효한 폐지 내규에 따라 법원조직법으로 소임을 넘기고 사라졌는데 그 내규보다 상위의, 또 그 뒤 만들어진 법원조직법이 왜 진화는커녕 되레 퇴화했다는 말인가. 이런 유의 상식 차원 질문 또한 법원 내부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필자의 과문(寡聞)이기 바란다. 내쳐, 그렇고 그런 위원 10명 가운데 선임 대법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비법조인 3명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6명은 대법원장 의중을 받들지 않을까 싶은 대목 그 상식 차원의 부자연스러움까지도 차라리 그 과문 탓이었으면 싶다.

‘헌법 밖 상고법원’은 위헌적 발상

양 대법원장의 숙원(宿願)이라는 상고법원 신설 구상도 상식과는 한참 거리멀다. 말이야 비단이라서,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던가. 그런데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못 박고 있다. 상고법원이 대법원은 아니니 ‘각급 법원’일밖에. 그러나 대법원은 ‘각급 법원’인 게 아니란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헌법 밖 상고법원’이라면 그게 곧 위헌(違憲)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이다. 대법원의 ‘상식 밖’이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다. 헌법 아래, 예의 법원조직법을 또 파고들었다. 지난해 12월 19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필두로 의원

169명이 연명해 ‘상고법원’을 끼어넣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한 것이다. 대법원이 정부, 특히 법무부와 협의하는 큰 길을 버리고, 의원 입법이라는 셋길로 빠져나간 것부터 상식 밖 비겁이다. 법무부가 상고법원 구상에 맞장구칠 리 없을 것이라고 미리 짚어 국회의원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게 그만큼 편하리라 싶었겠지만 글썽... 대법원의 대과(大過)가 여간 민망하지 않다.

이렇듯 법원의 상식을 문제삼으면 법원 측으로부터 헌법 제103조의 명문 ‘법관의 독립’을 흔드느냐고 항의받기 십상이다. 상식을 묻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 아니, 대꾸하는 것에 비춰서도 ‘법관의 독립’은 대부분 ‘도그마’의 다른 표현이 되고 있다. 필자는 서울 서초동은 사법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과 방산의 0.917은 물 밑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버무린 책 ‘서초동 0.917’(김희균, 노명선, 오경식, 정승환 저·도서출판 책과함께·2012.7.7)의 법원 편 그 결론 한 대목을 빌려 법원이, 법조가 독선에서 벗어나 상식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는 관견(管見)을 마무리 짓는다.

“만약 법원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는 법원 내부에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그것이 곧 망전필위(忘戰必危)의 안보진리이다. 적의 도발을 차단하려면 도발을 응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전면전을 억제하려면 한국군이 전면전도 치를 수 있는 군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원칙은 남북대화나 교류협력과는 별개로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보위급 국가인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이 안보위협이 없는 유럽국들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에 ‘복지정치’는 만발하고 있다. 민생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약화시키는 것도 정치권이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국정원의 대공도감청 활동을 위축시킨 것도 정치권이다. 북한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10년이나 되고 지상군 사단이 90개에 달하는데도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도 정치인이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은 1인당 3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고 가장 많이 받은 경우가 6천 5백만 원이었다. 6·25 참전용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18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세월호 희생자는 1인당 6억에서 최고 12억 5천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고,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자들에게도 10억 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불되었다. 선진국치고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보다 민주화 희생자나 수화여행 사고로 숨진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나라가 있는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 것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정치권은

이번 지뢰도발과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며, 무장정 군을 질책하기보다는 강군(強軍)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고 예산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정치권이 되어야 한다.

北 무력도발 막는 최선의 지렛대는 ‘힘’

8월4일 지뢰도발 사건에서 8월 25일 남북 고위급회담까지 3주는 한국 국민에게 있어 격랑의 기간이었다. 한국이 대북방송 재개라는 응징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대남협박이 가중되었고,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한국군도 맞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미동맹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긴장은 남북 고위급회담이 6개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해소되었으나, 합의내용의 적절성과 합의문 해석을 놓고 분분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도발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재발방지 약속이 부재하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이 합의를 위배하고 도발에 나설 개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활발한 논의들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많은 과제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에게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를 준수하게 만드는 최상의 지렛대는 힘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포기하게 하여 상생으로 나오도록 선도하는 최상의 수단도 바로 힘이기 때문이다.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식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응징이다. 한국군은 ‘도발시 반드시 응징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어찌 됐나

정치 개혁은 광복 이래 우리 정치의 중심과제였지만 개혁은 줄곧 미완을 거듭했다. 광복 70년을 맞은 지금도 역시 정치 개혁이 고창되고 있으나 이번에도 또 땀질 개혁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간의 큰 정치 개혁은 4·19, 5·16, 유신, 6·10항쟁 같은 혁명적 상황에서 우리 정치에 덮여 씌워진 것 일뿐 정당과 정치인들이 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이뤄낸 것은 별로 없었다.

작년 말 금년 초까지만 해도 19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정당·선거 개혁에 걸쳐 여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부각됐다. 국회 개혁 차원에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선진화’법 개폐 여부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지는 못해도 체포 동의를 쉽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 특권을 내려놓자는 데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각종 이권과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을 감싸기가 어렵게 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늘어난 것이다.

‘선진화법 개정’은 논의도 못해

특권 내려놓기로는 그밖에 의원들의 국회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의원 겸직 금지 또는 제한 강화, 출판기념회 금지, 국민소환제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과제들은 아직 충분한 논의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18대 국회말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에서 불쌍 사나운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국회의 반신불수화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모든 국회의원의 과반수 의결이란 헌법적 원칙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위헌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법으로 칼자루를 쥐게 된 소수 야당은 법개정 논의 자체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야의 정치 개혁 논의는 국회 개혁 보다는 정당 개혁과 선거 개혁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정당 개혁은 공직후보 공천제도 개혁, 선거 개혁은 선거구 재획정과 비례대표의 역할 및 정수에 논의가 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 편차 합헌 기준을 지금까지의 3대1에서 2대1로

太平路에서



성병국

·본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주필

정치개혁 논의 공천-선거구획정 등 정치인 관심사만 등장

국회선진화법 개정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민요구는 뒷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상당 폭의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관위는 이 기회에 현행 국회의석 300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바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례대표를 배정해 채워 나간다. 지역구도의 편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전체의석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이 커져야 한다.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릴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야

오늘의 니대르

이홍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석좌교수)



어느 정당도 지역구를 줄이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인구 편차를 줄여 지역구 재획정을 하려면 오히려 지역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은 현행 지역구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그 절반인 123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왔다. 국회의원을 지금 보다 무려 69명이나 늘리자는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야당 주

장은 씨도 먹히지 않았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지탄만 받았다. 결국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 석에서 더 늘리지 않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수 조정을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결국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고 현행 제도의 응급 땀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상향식 공천 일보전진 기대

정당제도 개혁은 공천의 민주화를 통한 정당의 민주화가 핵심 과제다.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가 의원들의 목줄을 쥔 정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권에 기인했다. 이 공천권의 흐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면 정당 민주화, 국회민주화, 대통령과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민주화의 획기적 방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우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현역 국회의원의 다면적 평가에 따른 20% 공천 배제와 공천과정에서의 여론조사 비중 강화 등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타당 지지자의 역선택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야 동시 전지역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한데 야당은 이에 반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조건을 내세운다.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거결과에 대입해 분석해 본 결과 의석이 줄어드는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내 친박계도 이의가 있어 여당도 그대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 그래도 여야의 움직임을 보면 다소나마 상향식 공천, 공천민주화 방향으로의 일보 전진은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천제도, 선거구 획정 등 정치인들의 당면 관심사에서만 맴도는 것은 개혁다운 개혁이란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작 국민들이 주시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국회선진화법 개폐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고 진지한 논의와 손에 잡히는 성과가 꼭 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

돌아서서 탄소리 北악습 막아야

43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된 판문점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6개항 합의로 일촉즉발의 전시상태 해소. 그렇죠. 매사는 대화로 풀어야죠. 문제는 돌아서서 탄소리하는 北의 악습이 문제.

정창기(편집위원)

전역 연기 병장들...4050세대도 본받길

北의 지뢰테러와 포격도발로 촉발된 전면전 위기 속에서 만기전역예정 병장들이 적의 도발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역 연기신청을 한채 완전 무장의 임전태세 보여. 전우애와 우국충정의 모범을 보인 장한 용사들은 최근 2030세대의 애국적 모습과 함께 크게 칭찬받을 일. 4050세대도 본받으시길. SK는 전역 연기신청 장병에게 우선 취업을 선물. 모두 훌륭하고 고마운 일.

한중광(이사)

'100자 발언권'

김관진과 황병서 공통점과 차이점

남북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김관진과 황병서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두 사람 다 1949년생으로 나이가 같다는 점이다. 둘째, 한 사람은 남쪽(대한민국)의 안보 총책임이고 다른 한 쪽은 북조선의 안보책임자로 ‘대칭적인 공통점’도 지녔다.

만일 이번 협상이 결렬돼 전쟁으로 급반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모르긴 해도 회담을 북쪽에 유리하게 이끌지 못한 책임으로 황병서의 정치 생명은 이번 일로 끝장나지 않았을까. 이 점만은 공통점이 될 수 없는 남과 북의 차이점이다.

지용우(논설고문)

입만열면 “통일!” ... 통일이 굴러들어오나

통일, 통일! 마치 통일이 대굴대굴 굴러들어올 것 같은 착시에 빠지는 요즘이 아닌가 싶다. 특히 판문점 고위급 접촉 이후에 번지는 양상.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통일’이란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독일 통일전문가들의 제언을 참고 해야.

윤재홍(편집위원)

한명숙 유죄가 왜 공안탄압인가.

검찰 기소 5년, 대법원 심리 2년, 일반 형사범이었다면 이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했을 시간에 나온 한명숙 전총리의 유죄판결. 한 마디로 봐주기 재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확정 판결이 있던 날은 ‘공안탄압’ 운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는 “사법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려고 상복을 입었다”고 법치를 조롱. 이제 감옥살이를 하려니 혼이 나간 게 아닌가.

정운중(상임이사)

김일성은 스탈린이 ‘간택’한 인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5년 8월 하순, 하바로브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 극동군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 앞으로 스탈린의 긴급지령이 도착했다. 북한을 소련의 지시대로 주도할 한국인 지도자를 지금 선발하여 보고 하라는 내용이었다. 총사령부는 국가보안인민 위원부의 극동지부와 협의하여 극동군 88특별여단 소속의 김일성(당시 본명은 김성주) 대위를 추천했다. 조선공산당 운동의 역사와 현상에 대해서는 어둡고 조선인 공산주의 지도자들과도 면식은 없지만 잘 훈련된 소련 극동군장교로서 그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스탈린은 즉각 김일성을 면접하고 싶으니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김일성은 군용기에 탑승하여 스탈린의 별장으로 직행했다. 스탈린과의 면접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어졌다. 스탈린은 면접 결과에 대해 만족해하며 김일성을 보내는 동시에 바실레프스키 원수에게 극비지령을 보냈다. “김일성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즉각 북한으로 보내라. 소련 극동군은 그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고위 정치장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장차 북한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낙점하지 못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다. 따라서 이들은 직감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우선 조선의 인민들로부터 절대적 추앙을 받고 있던 조만식(曹晩植·62세)을 막연하게 최고 지도자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사령부 지도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만식이 광범한 인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평양에 있는 사령부가 조만식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첩보국을 통해 모스크바 최고사령관에게 알려졌고 즉시 모스크바 사령부로부터 “조만식과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활용하라”는 질책 섞인 지령을 받았다.

당시를 회상하여 제25군 군사위원이었던 레베데프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모스크바로부터 지령이 떨어졌다. ‘며칠 후 수송선편으로 원산에 조선인 부대가 도착할 것이니 그들을 열차편으로 안전하게 평양으로 수송하라’는 내용이었다. 9월22일(1945년) 경으로 기억된다. 그 후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약간 서투른 소련말로 자신이 김일성(당시는 김성주라고 했을 것임)이고 88정찰 여단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어 88여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만(韓滿) 국경지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었다고 말했다. 순간 이 장교가 모스크바에서 낙점한 지도자 후보라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본명이 김성주(金聖柱)였고 만주지방에서 항일 빨치산운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로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진짜 항일 빨치산운동에 공을 세운 ‘김일성장군’이 있다는 풍문이 조선인민들에게 널리 퍼진 가운데 조선인민들은 해방된 조국에 그 장군이 개선허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뇌회전이 빠른 정치사령부의 젊은 장교들은 바로 여기서 미래의 수령 만들기 작전을 찾아야 한다고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 아이디어는 핵심지도부를 놀라게 했다. 훗날 북조선 건설의 총지휘자 스티코프 장군도 이 아이디어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붉은 군대는 김성주 대위를 조선인민들 속에서 전설의 영웅으로 불리던 김일성장군으로 둔갑시켜 북조선의 위대한 수령의 계단에 오르게 했다.”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만드는 이 작업의 총책임자는 스티코프 중장이었고 그의 지휘 아래 제25군 군사위원 레베데프 소장, 특수선동부장 코브젠코

극동군 소속 대위 모스크바 불러 면접 박헌영 제치고 ‘북한 최고지도자’ 재가

중좌, 로마넨코 민정담당 육군 소장, 그의 정치담당 보좌관 이그나치예프 대좌, 첩보국 책임자 아노히 육군소장, 극동사령부 7호 정치국 정치담당관 메크레르 중좌 등이 특명을 수행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1994년 중앙일보 김국후 기자가 모스크바의 레베데프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련 군정이 주관했던 조선신문과 라디오평양 등 선전매체를 동원했고 소련학자 박일(朴一)을 김일성대학 부총장으로 앉혀 김일성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르치도록 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우고 한반도에 민주기지를 창설하라는 특명수행을 위해 때로는 거칠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철면피하게 거의 무에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을 창조해 내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조선에는 김일성보다 몇 배 훌륭한 지도자 후보가 많았다. 고집쟁이 영감 조만식이 그렇고 공산주의 이론가 박헌영, 이강국, 김두봉 등도 위대한 지도자 후보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현재 인간적으로는 조만식에게 씌울 수 없는 죄책감을, 박헌영에게는 같은 공산주의자면서도 의리를 배신했던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레베데프는 당시 그의 역할에 대해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듯한 말을 했다.

당시 조선공산당을 주도하던 박헌영은 대답하게도 김일성과 소련점령군의 한반도정책을 비판하는 서신을 소련의 국가보안성 극동지부에 보냈다. 그것은 김일성과 소련점령군이 국내와 공산주의자를 배격하고 김일성 빨치산부대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스탈린은 이 보고를



이덕주

·전 경향신문 도쿄특파원
·전 KBS 기획이사
·전 한국방송사업단 사장

받고 박헌영의 비판에는 긍정할 만한 점도 있다고 생각했다. 스탈린은 46년 7월초, 김일성과 박헌영 두 사람을 모스크바로 불렀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 남한의 정세, 북한의 정세 등에 상세하게 질문했다. 두 사람의 대답이 끝나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는 이것 저것 지시를 하고 박헌영에게는 남한의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하는데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했다. 스티코프와 로마넨코는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최종적으로 재가한 것으로 생각했다. 결정적인 시점에서 스탈린은 다시 한 번 김일성을 확실하게 지원한 것이다.

참석자 모두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무서우리만큼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도대체 누가 누구 마음대로 조선혁명의 최고지도자를 결정하는가?”하며 모두들 분노에 휩싸였다. 참석자를 대표하듯 김삼룡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선혁명을 일궈갈 주체는 바로 우리 조선인민입니다. 조선인민 만이 당의 영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박헌영은 눈을 감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박갑동의 회상이다.

BBC방송의 존 스위니 기자는 2013년 3월 런던정경대(LSE) 박사과정 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북한에 다녀왔다. 그는 북한을 여행하고 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약 90개국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 24개국은 독재국이었고, 그중 10개 나라에는 몰래 잠입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내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괴상하고, 딱하고, 미친 나라였다. 차우셰스쿠 통치 때의 루마니아, 후세인의 이라크,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 무가베 정권의 짐바브웨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최악의 나라였다”

199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시절, 일곱 번째 소련 방문 때였다. 이명박 회장을 만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될 당시에는 북한의 공업이 더 발달하고 국민소득도 높았습니다. 남한은 겨우 농업에 의존하는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북한이 남한보다 가난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남한은 자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도록 종용한 것은 소련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문제는 소련의 책임이 큼니다”

50년 전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북한에 ‘김씨 왕국’을 만들도록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자책이 고르바초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4]



본회 회우들이 2015 격렬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安保전선 이상 없다” 확인

2015 통합화력 격렬훈련
본회 회우 35명 집단참관

지난 8월 24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육군 5군단 산하 승진훈련장에서 ‘2015 통합화력 격렬훈련’을 참관한 감

회는 남달랐다. 3년 전 같은 행사 때와는 달리 북한의 지뢰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 더욱 만감

7면으로 이어집니다.

“仁川 상륙작전은 ‘살아있는 전설’ 이죠”

9·15 인천상륙작전 65주년을 맞았다. 9·15 인천상륙작전 성공은 9·28 서울 수복(收復)으로 이어지고 38선을 넘어 10·1 북진을 단행, 평양탈환,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기폭제였다.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공군 100만 명의 인 해전술로 1·4 후퇴, 7·27 휴전으로 남북분단이 고착되었다. 9·15 인천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는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의 유엔군과 한국 육해군 및 해병대의 연합작전이 일궈낸 세계 상륙작전사상 유일한 감동의 승전 드라마이다. 당시 PC 704 함장으로 참전한 ‘살아 있는 전설’ 孔正植 예비역 중장을 만나 당시의 전승비화(戰勝秘話)를 들어봤다.

- 인천상륙작전 65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해병대 지휘관으로 참전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에요. 6·25전쟁 당시 26세 청년 해군소령으로 PC 704 함장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어요. 좁은 수로였던 인천 앞 바다에서 UN연합 해군함대의 일원으로 작전을 감행했어요. 작전에서 성공한 뒤 인민군과 공산당 좌익 폭도들에게 무참하게 학살된 많은 시민들의 시체가 수습되는 참상을 보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어요.”

- 먼저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을 반전시킨 대역전극인데, 작전계획은?

“인천상륙작전은 9월 15일 6시 33분 개시했어요. 맥아더 장군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정부에 공격을 요청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인천이 아니라 수도 서울 탈환이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은 만조(滿潮) 2시간 안에 초 전박살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8월 29일 드디어 동의(同意)명령을 받아냈지요. 9월 14일 마운트 매킨리 호에 올라탄 맥아더 장군이 ‘크로 마이트 작전(Operation Chromite)’ 명령을 내려, 상륙작전을 감행했어요.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육지 적군 진영을 폭격하고 바다에서는 우리 해병들이 손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

인터뷰·정리 유한준 편집위원 ·사진 해병대사령부 제공



해병대 사령부 서울기념관앞에서 인천상륙작전의 감회를 토로하는 공정식 전 사령관.

찬란히 빛나는 韓美해병의 戰果 국민에 희망과 용기준 일대 쾌거

▶공정식 이사장은

1925년 9월 경남 밀양 출신으로, 47년 해군사관학교 1기, 군번 ‘80125’ 임관한 뒤 해병대로 소속을 바꾸어 해병대 제3전투단장, 해병대 제1상륙사단장, 제6대 해병대사령관, 대사, 제7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해병대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통영상륙작전·인천상륙작전, 도솔산전투, 장단·사천강지구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한국군 첫 해외파병부대인 해병 청룡부대를 창설, 베트남에 파병했다. 금성을지무공훈장, 금성충무무공훈장, 미국동성훈장, 대한민국상이기장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바다의 사나이 영원한 해병>, 아들 셋, 손자 둘도 해병대 출신이며, 큰아들(용우씨)은 월남전 참전 용사이다.

원일 제독 등의 지휘에 따라 선두에서 공격을 감행하였지요.”

- 당시의 전황(戰況)은?

“한반도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었지요. 미8군 위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하는 동안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은 미국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 휘하 미 해병 제1사단과 한국 해병 제1연대를 인천에 상륙시키므로써 6·25전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지요. 여기서 6·25전쟁의 역사를 크게 4개 국면으로 나뉘 볼 수 있어요. ① 북한군의 남침 ② 유엔군의 반격 ③ 중공군 개입 및 유엔군 후퇴 ④ 유엔군 재반격 및 현 휴전선 일진일퇴 국면 등이요. 인천상륙작전은 두 번째 유엔군의 반격 국면에 해당돼요.”

- 인천상륙작전의 구체적 작전 전력은?

“인천상륙작전은 ‘제7함동 기동부대’ 사령관으로 스트러블 미 7함대 사령관이 겸직 발령을 받았지요. 함동기동부대의 함정은 참전 8개국의 총 261척이었는데 미국 함정을 비롯하여 한국 해군 15척, 영국군 12척, 캐나다 3척, 오스트레일리아 2척, 뉴질랜드 2척, 프랑스 1척 등이었어요. 동원된 병력 총 7만 명 중 상륙돌격의 주력은 미 해병 제1사단과 한국 해병 제1연대였어요. 상륙작전은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작전이지만 공군의 지원도 필수적이었지요. 유엔 공군기가 무려 1,000대 동원되었으니까요. 상륙 D데이 9월 15일 예정보다 3분 늦은 오전 6시 33분 제1단계로 미 제5해병연대 3대대와 한국해병대 1개 중대가 20여 척의 상륙주정을 타고 녹색(綠色)해안 월미도에

터치다운한 다음 최초 목표 105고지 정상을 점령하는 장면을 외항의 상륙기동함대 기함(旗艦)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맥아더는 ‘오늘 아침보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더 찬란하게 빛난 적은 없다’고 격찬하는 메시지를 보냈었지요.”

- 인천상륙과 서울탈환 작전과 평가는?

“세기의 도박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죠.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자존심을 되살린 쾌거지요. 단순한 전투작전 성과로만 간과해서는 안 돼요. 포괄적으로 일련의 이 작전들은 ①한국국민의 전의고양(戰意高揚) ②유엔군의 공세이전의 계기 조성 ③유엔군의 전쟁목적 변경 ④한국군의 전투사기 고양 ⑤북한 인민군의 동서해안에 대한 방어부대 분산 고착화 등 전략적인 효과가 크고 높아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이 전쟁과 관련된 각 행위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단순한 전투작전 성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인천상륙작전 제65주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북한정권에게 끼친 심리적 물리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이어 서울 수복작전을 완벽히 수행한 한미 해병대의 활약은 패전의식과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인천상륙 12일만인 27일 오후 중앙청에 진격했고 28일 아침 6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게양했어요. 서울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우리 해병이 크나큰 자부심을 과시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軍은 국가의 간성이고 보루이다. 후진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은?

“전후세대들인 청소년들이 최근 대북경각심 등 안보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언론의 분석을 보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오히려 기성세대인 중년층에서 대북한 자세에 해이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요소 때문이라는 소회(所懷)가 들어요. 우리 후진들이 전쟁의 참상과 국가의 번영,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적 남북통일, 민족의 백년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족과 국가를 확고하게 바라보는 관점, 거기에서 솟아나는 애국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당부하고 싶어요.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구하라’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것이지요.”

- 장군께서는 이 순간에도 軍의 발전과 해병훈(海兵魂)을 심어주는 일에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시는데… 건강 등 근황(近況)은 어떠신지요?

“최근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 받은 일 외에는 아주 건강해요. 아마도 평생을 ‘영원한 해병’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산책, 독서가 건강 비결인가 봐요. 몸은 군문(軍門)을 떠났지만 정신은 군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날 수도 없는 운명인가 봐요. 아흔이 넘어(현재 91세)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일상 대화에 큰 지장은 없어요.”

6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교차했다. 이날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적의 전차 대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는 전투상황을 상정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각종 화기들이 어떻게 통합 운용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별컨포 1400발, 12 KA 240발, 6K6 600발, 106밀리 2발이 굉음을 내며 적 GP를 격멸하는 사격을 비롯, 합동 전력으로 적의 지휘시설을 타격한 3KF-16(MK-82)의 위력은 적진지의 초토화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공군의 화력지원 위력은 육군이 이런 압도적인 항공지원을 받아 순식간에 적 진지를 궤멸 제압할 수 있을 것이란 신뢰를 과시했다. “우측 상공을 봐 주십시오. 지금 F15K 전투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적 강도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병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방 목표물은 화염으로 뒤덮였다. ‘우르릉 쾅’ 하는

폭발음이 훈련장 전체를 휘감았고 참관자들은 폭음소리에 귀를 막았지만 총격파는 여전했다. 잠시 뒤 탱크 킬러 코브라 헬기와 미군 아파치 헬기가 비호처럼 나타나 적 진지 탱크 표지를 산산조각 냈다. 가상 적 고지가 불바다가 되고 아군의 공격이 명중할 때마다 관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저런 장면은 김정은이가 봐야 하는데--” 박수소리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나온 반응, 우리 안보전선은 이상 없다는 믿음을 확인한 하루였다.

참고로 승진훈련장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훈련장을 방문하여 화력시범을 참관하고 승진(勝進)이라는 휘호를 써 준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승진훈련장은 한해 40여개 부대가 종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는 이날 국방부와 육군 제5군단의 초청으로 35명의 회원들이 참관했다. <J>

감동...또감동... 美國의 순직軍人 예우

어느 여객기 機長의 SNS기고

비행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객기 여사무장이 와서 내게 말했다. "이번 비행에는 시신이송도 하게 됩니다" 나는 군인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맞다고 했다. 에스코트(시신을 목적지까지 호위하는 장병)가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에스코트가 있으며 이미 좌석번호를 배정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에스코트의 탑승 수속을 우선 실시하여 조종실로 모시고 오도록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병장 한명이 조종실로 들어왔다. 그는 매우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고 나는 그가 에스코트 하는 시신에 대해 물었다. 순직·전사한 군인을 호위하는 에스코트들은 시신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분은 지금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가시는 중입니다"

나는 몇 가지 더 물어봤고 그는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추가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으나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군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를 한다고 말 한 후 전사한 장병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나와 부기장은 일어서서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조종실을 나갔다. 우리는 비행 전 점검을 끝내고 아무 이상 없이 출발했다.

비행한지 30분쯤 지나자 객실의 여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사한 장병의 가족도 지금 항공기에 같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이 전사한 장병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2살 난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가족은 이륙 전 아들의 관이 항공기에 탑재되는 것을 보지 못해 속상해하고 있었다.

다음 기착지는 굉장히 크고 부산한 연결 공항으로, 그 가족은 거기서 4시간 기다린 후 버지니아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죽은 장병의 아버지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아들이 화물칸에 있음에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리곤 공항에 도착할 때 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가족들은 화물칸에서 아들의 관을 꺼낼 때 이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전하며 조치방법이 없겠냐고 질문하는 사무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아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비행 중 회사와의 통신은 주로 이 메일 같은 메시지로 이루어지곤 했다.

나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 음성 통신망(ACARS)을 사용해서 곧바로 운항관제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나는 운항관제사에게 직접 교신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의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2시간이 흐른 뒤에도 운항관제사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빠빠질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족들에게 뭐라고 전해야할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문자메시지로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현황을 요청했다.

운항관제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기장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항공기가 도착하면 별도의 에스코트 팀이 대기하다가 마중 나갈 것입니다. 이 팀이 가족 분들을 램프를 통해 항공기 옆으로 모실 것입니다. 한 대가 시신을 운반하고 한 대는 가족들을 태울 것입니다. 가족들은 램프에 있는 시신을 지켜볼 수 있는 터미널안의 가족만을 위한 공간으로 에스코트될 것입니다. 연결 항공편이 도착하면, 가족들은 다시 램프로 에스코트되어 마지막 항공기에 시신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장님, 여기 관제실 요원 대부분은 참전용사들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느 여객기 기장이 장병의 시신을 이송하면서 겪은 내용을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필자 주>



배천(白川) 조창화

- 서예가
- 본회 고문
- 전 KBS 보도국장

시신이송 비행기

유족들에 특별대우

불편참고 전단

승객들 박수

美國이 강한 이유

우리는 언제쯤...

나는 관제실에 수고했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 메시지를 프린트하여 사무장을 시켜 전사한 장병의 아버지에게 전해주도록 했다. 사무장은 자기 일처럼 고마워하며 가족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착륙을 위한 강하를 시작하며 바빠졌다.

착륙 후에는 바로 활주로를 벗어나 램프가 있는 곳으로 다 갔다. 램프는 15개의 게이트가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바쁘고 복잡한 곳이다.

우리가 램프로 들어서며 램프 관제사와 교신하자 그는 모든 항공기가 우리를 위해 홀드(滯空상태를 뜻하는 항공 용어:방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는 가족들을 에스코트할 팀도 대기 중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전벨트 표시를 끄는 순간 모든 승객들이 일어서서 자기 물건을 챙길 것이기 때문에 전사한 장병의 가족들이 빨리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내려야할 게이트에 다다르자 부기장을 시켜 램프 관제사에게 승객들에게 방송을 하기 위해 게이트 전에 잠시 정지한다고 전달하게 했다.

램프 관제사는 천천히 해도 좋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나는 항공기를 정지시키고 파킹 브레이크를 걸었다. 곧바로 기내 방송 버튼을 눌렀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이 항공기의 기장입니다.

저는 특별한 전달 사항이 있어 게이트 전에 항공기를 잠시 정지시켰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우리의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승객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목숨을 잃은 XXXXXX 이병이며 지금 여러분 발밑 화물칸에 잠들어 있습니다. 에스코트는 XXXXXX 육군 병장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XXXXXX 이병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분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항공기가 멈추더라도 잠시 자리에 앉아 계셔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게이트로 향했고 완전히 멈춘 후, 끄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몇 분 후 나는 조종실의 문을 열었다. 2명의 전방 객실 승무원이 울고 있었다. 그들은 항공기가 멈춘 후 모든 승객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가족들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일어서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 한 승객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두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세요."와 같은 위로의 말들이 내리는 가족들을 향해 터져 나왔다.

가족들은 에스코트를 받아 램프를 내려가 장병의 시신 곁으로 갔다. 항공기에서 내리는 많은 승객들은 나에게 방송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그것은 언제라도 반복할 수 있는 말일뿐, 그 용감한 이병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4\]](#)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미국의 자유와 안녕을 위해 희생한 수백만을 위해 감사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문화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평해전 참전용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하신 분들과 유가족이 개인적 여행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보다 못한 대우를 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나라는 변할까요?”

롯데그룹 분쟁 재벌개혁 계기로

요즘 롯데그룹은 기상천외한 지배구조와 밀실 경영을 스스로 폭로하고 ‘형제의 난’까지 연출하고 있다. 롯데의 이러한 자폭적인 사태는 국민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고 1997년 외환위기 때 몰아쳤다가 잠잠해진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논의를 불러 오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롯데의 지배주주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지난달 17일 열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지지함으로써 ‘형제의 난’은 신 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는 듯하다. 하지만 그의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태를 중단하기는 어렵다.

롯데그룹의 기상천외한 지배구조

신격호 총괄회장의 0.05 % 지분이 83조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대주주인 일본의 광운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롯데 계열L투자회사를 통해서 한국의 롯데호텔을 지배하고 롯데호텔이 한국 내 모든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일본 지주회사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한국기업이 아니고 일본기업이다. 물론 기업의 경영 형태가 글로벌화되면서 기업의 국적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롯데그룹은 다르다. 현재 롯데그룹 총매출의 94.7%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롯데그룹이 글로벌기업도 아닌 한국 토종기업이나 다름이 없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롯데그룹이 재계순위 5위로 성장하는데 정부가 지원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973년 롯데호텔을 지을 때 반도호텔과 국립중앙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정부이고 롯데백화점 대지도 산업은행이 있던 곳이다 또한 롯데호텔 연 총매출액 4조 7천억원의 84%인 4조원이 면세점 운용에서 얻고 있다. 정부가 허가해준 면세점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는 것 역시 정부특혜에 힘입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롯데그룹 '형제 간 분쟁'은 4년 전 싹터

2011년 한일 롯데그룹 분리작업이 시도됐으나 무산되었다. 그 당시 한국은 신동빈, 일본은 신동주, 면세점은 신영자의 구도 아래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1조원으로 추정되는 세금이 문제가 되어 중도 포기되었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이 막상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장남 신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경영성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의 롯데지분까지 사들였다.

하지만 해외투자자와 인수합병(M&A)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데다 7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에 실패하자 신 총괄회장은 작년 12월 장남 신동주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신 부회장이 각종 여론전을 통해 ‘아버지가 정한 후계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격했다.

그러자 신 회장이 6월 30일 한국 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L 투자회사 이사회를 장악한뒤, 보름 뒤인 7월 15일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로 신 회장이 선임되고 8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부지원으로 성장 외국기업이유 공개 않는건 말안돼

가족경영권 분쟁넘어 지배구조 개선으로 ‘신뢰의 자본’ 쌓아야

월 17일 신 회장이 올린 투명경영방침과 사외이사 선임 등 2개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었다.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신 회장이 장악한 셈이다.

롯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길

롯데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국 롯데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운사 지분 그리고 최대 주주 등이 밝혀져야 한다. 롯데처럼 상호출자가 제한된 국내 기업집단은 비상장회사라도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이나 임원의 구성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롯데는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개 의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롯데그룹의 경우도 국내기업처럼 공개토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롯데호텔을 상장시켜야 한다. 이 방안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신 총괄회장의 반대로 실행 되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8월 11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롯데호텔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방법 역시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 상장될지 모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그래서 오너 일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재벌개혁의 합리적인 방안

결론적으로 롯데그룹의 여러 가지 전근대적인 이면을 보여준 경영권 분쟁은 골육상쟁의 가족사로 해석되기 보다는 한국사회에서 보다 선진화된 기업토양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되어야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온갖 규제 입법이 이뤄졌지만 그 때마다 재벌은 우회할 길을 찾아 입법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외이사가 거수기로 둔갑해서 사내이사나 다름이 없이 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선진국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한국에서는 왜 나쁜 제도로 변질되었는지 꼼꼼히 생각해볼 문제다.

이번에도 재벌개혁 논의가 허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재벌과 이해당사자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실행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이 권위주의와 폐쇄성을 버리고 ‘신뢰의 자본’을 쌓는 것이다. 재벌 스스로 시장과 소통하며 글로벌 경영체제에 맞춰 진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벌, 학계, 소비자(국민)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벌개혁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또 롯데그룹처럼 후계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간 재산 분쟁은 심각해지고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뿐 아니라 그룹의 자산 가치도 낮아지게 된다. 현대그룹 ‘형제의 난’, 두산그룹과 효성그룹 형제간 분쟁 등 한국 재벌은 상속문제를 두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벌들은 사전에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롯데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원로회원)



한사람인지? 두사람인지?

2015 ‘대한언론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시상일 추후공고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언
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5년도 대한언론상(제25회) 수상 후보
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수상자는 2015년 10월 1일자 ‘대한언론’
에 발표)

〈응 모 요 령〉

- * 분 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 학술 연구분야
- * 대 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 관련단체 또는 개인
- * 공적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세부 공적내용(A-4용지 2 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소속 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 접수마감 : 2015년 9월 15일 오후 5시
- * 시 상 일 : 추후 통보
- * 접 수 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전화 02) 732-4797~8, 02) 2001-7621 E-mail : kjcl405@hanmail.net

2015년 8월 1일

大韓言論人會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음악프로그램에 ‘음악’이 없다

라디오 시대의 음악은 제왕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의 가사를 받아 적어 따라 불렀다. 정오나 자정이면 노래를 신청해 듣는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다. 엽서를 보내고 기다려 듣는 황홀함. 엘비스 프레슬리나 레이 찰스, 짐 리브스의 노래를 듣는 것도 라디오였다. 줄리에트 그레꼬나 에디트 피아프, 앙리코 마시아스의 샹송도 라디오를 통해 들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음악 시간에 배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도 들을 수 있었다. 베를린 필이나 빈 필의 연주도 들었다. 그리고 보면 흥난파나 윤용하, 이혜구 같은 우리 음악의 선구자들이 라디오에서 일했었다.

케이블TV엔 비속어까지 등장

2015년, TV의 음악 프로그램들의 상황은 어떤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는 노출이 심한 아이돌들이 나와 춤을 추며 입을 뽕긋거리고 있다. 좋은 음악을 고루 소개해야 할 음악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는 실

종됐다. 지상파 3사가 모두 같은 아이돌들로 음악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다. 한국 지상파의 음악 프로그램들은 아이돌 채널이 됐다.

케이블 TV의 경우는 비속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4’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민호는 다른 출연자와 랩 경연을 하던 중 “MINO(송민호의 영어 이름)/팔내미 저격/산부인과처럼 다 벌려”이라고 내뱉어 하루 만에 트위터에서만 비난과 사과 요구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송민호 외에도 이 프로그램에선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는 여자 난자갈이’라는 식의 여성 비하 내용이 담긴 랩을 하는 출연자에게 별다른 제재나 편집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케이블 MBC 에브리원의 ‘비밀병기 그녀’는 신인 걸그룹 멤버들의 선정적인 안무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나 얇은 옷을 입은 몸에 물을 끼얹는 장면을 방영했다.

음악 프로그램이 제 구실을 못하자 음악은 예능으로 옮겨갔다.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음원 차트에서 이수만과 양현석보다 강하다고 한다. ‘무한도전’에 나오는 것이 가수가 인기를 얻는 첩경이 된 것이다. 초기 가요제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은 곡을 받기 위해 작곡가들을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뮤지션들에게 자신과 함께 해야 할 수 있다고 정형돈은 큰 소리 친다. 아이즈의 강명석 편집장은 “올해 무한도전 가요제는 그들도 모르게 대중음악산업에 한 가지 선언을 했는데 이제 뮤지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형 기획사와 계

방송시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아이돌가수 경연·예능에 점령당해
전통있는 프로마저 매너리즘에 빠져

약하거나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단 둘” 뿐이라는 것이다. 음악에 미치는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이 그만큼 막강해졌다는 뜻이다.

복면쓰고 假聲으로 노래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MBC ‘복면가왕’도 예능이 음악을 점령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연하는 가수들은 심사진이 자신들을 모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괴한 복면을 쓰고 의상과 분장으로 철저하게 위장한다.

자신들을 모르게 해야 하니 노래도 가성(假聲)을 쓴다. 자신의 개성은 철저히 감춘다. 그러니 좋은 노래의 기본인 좋은 음성과 음악성은 뒷전이다. 음악이 예능에 완전히 함몰된 경우라고 하겠다. 가수들은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 같은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불려야 한다.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발라드를 불러도 복면 때문에 도통 감정 이입이 되지 않는다.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1차전은 남녀 가수 두 명이 나와 대결하는 방식이다. 이미 데뷔한 기성 가수의 입장에선 이런 포맷이 싫을 법 한데 이들은 기꺼이 감수하고 최선을 다한다. 떨어진 가수는 얼굴이 공개된다. 그들은 한결같이 ‘재미 있었다’며 자신을 떨어뜨린 프로그램에 감사해한다. 프로의 무대에서 보기 힘든 참 희한한 일이다.

케이블 엠넷 ‘슈퍼스타K’ 같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노래 실력 보다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더 주목받는다. 우승을 해도 반짝 인기일 뿐 다음 시즌이 되면 곧 잊힌다.

조선일보 문화부의 권승준 기자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책임은 모두가 나눠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음악 프로 PD들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예능 PD들은 시청률을 핑계로 뮤지션들을 데려다가 쇼를 시키고, 음악가는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절박함에 그걸 받아들이고, 대중은 그저 즐길 뿐’인 것이다. “K팝이니 한류니 어느 때보다 화려함을 뽐내는 한국 대중 음악계가 마주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현실”이라고 권 기자는 진단한다.

가요무대 - 전국노래자랑 천편일률

KBS의 ‘가요무대’는 원로 아나운서 김동건 씨가 진행하는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다. 흘러간 옛 노래를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계속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흐름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는 안정감은 있지만 이런 무변화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를 제작진은 돌아봐야 한다.

국민 노래 부르기 프로그램이라고 할만한 KBS의 ‘전국노래자랑’은 원로 MC 송해 선생이 지난 1988년 5월부터 27년간 진행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5세 어린이부터 115세 노인까지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출연 대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음악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입상한 사람이 프로의 길로 나서는 경우도 있어 가수의 등용문(登龍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역시 수십 년 변화가 없다. 인기에 기대어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음악 프로그램들은 예능에 차례차례 점령당했다. 이제 음악 프로그램에 정작 음악은 없고, 쇼만 난무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섹스나 변태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한다.

TV에서 격조 높은 클래식 프로그램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KBS 교향악단은 ‘열린음악회’에서 가요 반주를 하기도 한다. KBS 교향악단은 본격 연주를 더 많이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하기를 바란다. 오늘 같은 영상 시대에 연주자만 비추는 클래식 공연은 시청자를 끌지 못한다. 여행과 음악을 연계하는 등의 기획이 클래식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KBS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정규 방송이 불가능해져 보관하고 있던 클래식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방송한 적이 있었다. 그때 ‘요즘 KBS가 볼 만해졌다’는 반응도 있었다.

방송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K]

종이신문매

2014년 결산...지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게재했다. 39개사 중 34개의 종이신문사들은 전년(201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종합일간지(2.86%) 경제지(1.7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감소했다. 특히 무료신문(-76.58%)과 스포츠지(-22.88%)의 구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탄 때문이다.

11개 전국종합일간지는 2014년 총 1조 4,154억 원(중앙일보(2,936억 원), 동아일보(2,857억 원) 등)로 전년 대비 -1.40% 성장했다. 예매율로 전년 대비 -5.41% 성장했다. 3대 메이저 신문사 중 8개 신문사들의 점유율(35.1%)은 조금 하락했다.

당기순이익(손실) 추세는 매출액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년 대비 -24.62% 성장한 450억 원에 그쳤다.

경향신문은 807억여 원의 매출과 3억 4,800만 원의 당기순이익(-98.80%)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민일보는 468억여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29억 4,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내일신문은 420억여 원의 매출과 101억 원의 당기순이익(-26.14%)했지만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국종합일간지 중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는 2,857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3.08%), 문화일보(0.05%)와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은 33억 4,000만 원으로, 전국종합일간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일보는 664억여 원의 매출(전년 대비 0.05% 증가)을 올렸으며, 당기순이익은 33억 4,000만 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33억 4,000만 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서울신문은 전년 대비 6.96% 감소한 8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당기순이익은 33억 4,000만 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세계일보는 399억여 원의 매출로 지난해 3.08% 증가한 306억 원에 달했다. 신문 매출과 인쇄부분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사업수익, 임대수익, 뉴미디어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49억 원 줄였다. 임원 및 직원 급여와 퇴직 급여 모두를 전년보다 감축했다.

중앙일보는 2014년 -4.10% 성장해 2,936억 원의 매출을 기록,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00억 원대 아래로 추락했다. 또한 69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중앙일보는 신문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임으로써 10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한겨레신문은 812억 원(-0.55%)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이어왔던 흑자 기조가 적자(11억여 원)로 돌아섰다.

한국일보는 570억 원의 매출(-7.50%)로 동업계 8위를 기록했다.

8개 경제지의 2014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70% 성장한 6,345억 원이었고,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39% 늘어난 365억 원 가량이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가 3년 연속 매출액이 성장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당기순이익도 3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매일경제는 0.80% 성장한 2,197억여 원의 매출을 달성, 신문업계 전체 4위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직전 연도와 보험세였지만 당기순이익은 직전 연도보다 214.7% 증가했다.

한국경제는 4.32% 성장한, 1,478억 원의 매출과 3.24% 늘어난 133억 5,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신문업계 전체 기준 5위에 해당된다. [K]

(자료제공 :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총 2.41% 감소

경제지만 소폭성장

매출하는 39개 신문사의 2014년도 경영성과가 밝
2013) 대비 2.41% 감소한 총 2조 3,614억 원의 매
고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매출액 감소율이 컸다. 출퇴근길 지하철 등에서
여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조선일보(3,393억 원),
매출액 기준 3대 메이저 신문사들의 매출 총액은
타의 8개 전국 종합일간지들은 총 4,968억의 매출
들의 시장 점유율(64.9%)은 다소 상승했고, 여타

을 보였다. 11개사 전체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전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4.15%)뿐만
해 2013년과 비교하여 경영성과가 좋지 못했다.
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5년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다.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
간지에서 조선일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3%의 아주 미세한 성장이다.
05%)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순이익은 30억여 원에 그쳤지만 전년 대비 13.52%
가세였다.

% 성장)로 2013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 상대
여 원(전년 대비 2.35% 하락)을 기록했다.
의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20억여 원으로, 4년만에
5.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80% 성

종합일간지·경제지 매출액·당기순이익(2014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경향신문	84,190	80,699	28,923	348
국민일보	46,805	46,754	-979	-207
내일신문	56,804	41,958	10,337	10,104
동아일보	284,161	285,655	2,676	3,037
문화일보	66,321	66,353	3,403	3,323
서울신문	89,197	82,992	-7,819	2,030
세계일보	38,675	39,865	743	601
조선일보	341,292	339,273	28,126	30,601
중앙일보	306,143	293,604	582	-6,927
한겨레	81,659	81,210	2,285	-1,123
한국일보	61,609	56,990	-8,597	3,203
매일경제	217,975	219,720	5,150	6,256
머니투데이	48,977	52,445	1,002	3,640
서울경제	46,651	47,660	4,352	3,981
한국경제	141,665	147,787	12,938	13,357
헤럴드	61,119	60,508	4,724	3,820

※ 자료 : 금융감독원 ※ 공시대상 : 자산 70억 원 이상의 법인

‘한명숙 판결’ 司法府능장 질타

신문시평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 전 언론법학회 감사

‘정치적 탄압’ 野주장에 비판 쏟아져
아베日총리 담화 비판 뜨뜻미지근

위원은 권은희 의원의 허위 증언 혐의
기소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권
의원의 법정 증언이 의도성을 띤 모해
(謀害) 위증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권력형 부패 척
결은 사회기강 확립 사회통합 국가정체
성 확립의 첫걸음이다. 썩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판을 서두르라는 언
론의 당부를 사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對中國 외교 검증”사실 시의 적절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문재인 새정
치민주연합 대표의 ‘조건 없는 남북 고
위급 회담 제의’ 주장에 야당지는 즉각
호응했으나 동아일보는 “무조건 고위급
회담 꺼내기 전에 안보 생각해 봐야”라
고 문재인 대표에게 질문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미국은 우방 방어에 확고
하다”고 강조한 반면 “중국은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한편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동도 중
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중립적인 발언을
했다. 동아일보가 “중국 믿을 수 있나”
라는 사실을 통해 중국의 대한외교 전향
과 정부의 대중국외교 검증을 촉구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두 사설
은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 남북대결 국
면에서 북한의 남남 분열 조장과 시간
끌기 작전에 동조하는 신문 논조가 줄어
들고 있음은 다행이다.

아베담화 西歐언론서 ‘불충분’ 보도

패전 70주년 아베 담화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신문의 논평은 수박 겉핥기식이
였다. 임시 각의를 거쳐 정부 공식 문서
로 발표된 아베 담화에 대해 박대통령
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지만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다는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아베
담화의 실천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라고 권고했으나 패전
50주년에 일제(日帝)의 침략전쟁과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죄했던 무
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아베 담화
가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왜 담화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아베담화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일부 한국신문 논객은 ‘역
사수정주의’라고 객관화했으나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 의 주요 언론은 일제
히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역사인식의
후퇴라고 역사학자들은 비판했다. 패전
70년을 정리하는 아베담화는 요시다 쇼
인(吉田松陰)의 정한론과 대동아경영론

의 첫걸음인 러일전
쟁 미화로 시작했
다. 아베는 제국주
의가 아시아 침략을
합리화하는 오리엔
탈리즘 궤변으로 일
제(日帝)의 아시아
침략을 변명했다. 아베는 일본이 제국주
의 세력과 손잡고 아시아를 침략한 러
일전쟁이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
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었다고 거짓말
까지 했다. 일제 침략에 대한 진솔한 속
죄 없이 일본 전후 세대의 사죄 종언을
선언한 아베담화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부분적 유감’
이나 ‘실망’이란 표현 없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방위가이드라인
개정 연속선상의 일본 편향 정책을 밝
힌 것이다.

8월 12일 서울 서대문 역사관을 찾아
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
본 총리는 유관순열사가 고문으로 목숨
을 잃은 참사를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 숙이고,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
마 도미이치 등 전직 총리는 아베가 밀
어 붙이고 있는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
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대학이 8월 22일 현재 약 90개에 이른
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
본 열도에 핵폭탄이 투하되는 제2의 핵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신문도 일본군의 한반
도 상륙반대를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이다. 일제 굴레에서 벗어난 지 70년,
진정한 광복을 위한 국민의 각성과 전
혀 다른 새 국가체제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전직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부
패, 친일·친미·친북종속세력의 남남갈등
분열책동, 재벌의 횡포, 성윤리 문란, 교
육파산, 파워엘리트의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하다. 국가 정체성과 국민도의를 바
로잡을 문화혁명과 교육개혁을 신문이
선도해야 할 것이다. [필자]

회우들이 펴낸 신간

윤주영 원로회우 사진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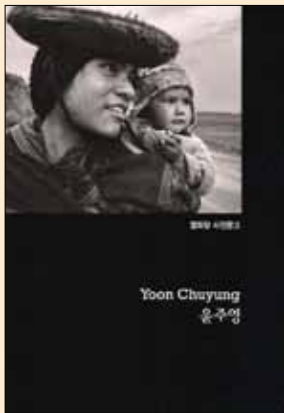
윤주영 원로회우(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칠레대사·문화공보부장관)의 사진작품이 문고판으로 출간됐다.

30여년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삶과 죽음,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 전쟁과 평화, 개인과 사회, 노동의 신성함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던 수십만장의 작품 가운데서

1,500장이 추려졌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 작품 62점이 엄선되어 자신의 설명까지 수록되어 있다. 반양장 144쪽으로 사진을 본다가보다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진 소설 같은 사진문고판이다.

이 사진문고는 크게 ‘인간문화재’ ‘안데스의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 ‘동토의 민들레’ ‘탄광촌 사람들’ ‘베트남 전후20년’ ‘석정리 역의 어머니들’ ‘갯벌의 어머니들’ ‘장날’ ‘일하는 부부들’ ‘행복을 찾은 아이들’을 주제로 한 연작이다.

결론은 윤주영 원로회우의 사진작업은 압축한 ‘사람’이다. 사진가 윤주영 원로회우는 이번 또한번의 사진집으로 불꽃처럼 살아온 팔십팔년 생애



의 열정을 압축하면서 “삶은 계속되어야 하며 심지어 죽음조차 삶의 일부이며 시작이다. 따라서 살아남을 것,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으며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 편의 논문을 쓰듯 기승전결을 갖고 분명한 논리를 펼쳐나갔고 그것이 그의 작가적 특성이다.

윤주영 사진작가는 지금까지 전시회 30회, 스무권의 사진집이 세상에 나왔다.

이번 사진문고는 파주출판단지에서 열화당에서 만든 ‘열화당 사진문고’로 이 사진문고에는 시리즈로 국내외의 뛰어난 사진가들의 엄선된 작품과 사진설명, 작가론, 연보가 밀도있게 담겨있다.

윤주영 원로회우는 27세에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 33세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되었으며 35세에 정계에 진출하여 16년간 요직을 두루 거치고는 51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카메라를 메고 30여년간 국내는 물론 전세계 구석구석을 찾아 그의 세계를 담고 있다.

〈열화당·문고판 144쪽·값 14,000원〉

10월 3일까지 사진전도 열어

사진 에세이집을 출간한 윤주영 원로회우는 사진전시회도 열어 사진가로서의 노익장을 보여줬다.

8월 22일 오후5시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있는 한미타워 특별전시실에서 개막식을 가진 미수기념 윤 원로회우의 사진전시회는 10월 3일까지 계속된다.

개막식에는 방우영 조선일보 고문 등 각계 인사, 그리고 대한언론인회 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시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 85점이 전시되고 있다.



윤주영 원로회우가 사진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본회 회우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김영수 김운곤 김은구 김종하 김준하 남시욱 도준호 박기병 박실 박용근 서병호 신동호 안병훈 윤기병 이덕주 이도형 이병훈 이역순 이인원 이종식 정범태 제재형 조성국 최서영

황원갑 회우 소설 ‘단심-포은 정몽주’

작가 황원갑 회우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일생을 그린 역사소설 〈단심(丹心)-포은 정몽주〉를 펴냈다. 서장 정몽주와 이성계, 제1장 소년시절, 제2장 풍운의 고려조, 제3장 사선을 넘어, 제4장 일본행, 제5장 조선원수, 제6장 위화도 회군, 제7장 선죽교의 한, 종장 불멸의 영혼으로 구성된 이 역사소설은 포은 정몽주의 출생부터 선죽교에서 순국할 때까지 56년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역동적인 필치로 그린 작품이다.

정몽주는 1360년 과거의 삼장에서 장원하여 이름을 떨치고 벼슬길에 올랐고 당대 최고의 학자 이색의 문하에서 정도전과 함께 학문을 익혔다. 이후 고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리학을 탁월하게 이해하고 소화한 뛰어난 학자로서, 명나라나 왜국과의 외교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외교가로서 그 역량을 발휘하였다. 또한 정몽주는 정도전과 ‘마음을 같이한 벗(同心友)’으로서 맹세를 하며 깊은 교분을 나누기도 하였다. 물론 역사의 선택은 정몽주와 정도



전을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는 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패한 정몽주는 살해당하게 되지만……. 〈단심-포은 정몽주〉는 그와 같은 정몽주의 일생을 철저히 고증하여 소개하는 한편, 아울러 왕건(王建)의 고려 건국과 후삼국통일, 서희(徐熙)의 거란 격퇴, 강감찬(姜邯贊)의 귀주대첩, 윤관(尹

瓘)의 여진정벌, 100년간의 무신시대, 삼별초(三別抄)의 대몽항쟁, 기황후(奇皇后)의 일생, 공민왕(恭愍王)의 개혁정치, 최영(崔瑩)의 일생, 최무선(崔茂宣)의 진포대첩,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회군과 조선 건국, 정도전(鄭道傳)의 일생 등 고려시대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흥미롭게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저자는 작년에 방영된 TV사극 ‘정도전’에서 다섯 살이나 나이가 위이고 과거에도 2년 앞서 급제한 선배인 정몽주에게 정도전이 거리낌 없이 반말을 하고 심지어 하대까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서출판 바움·4·6 배판 271쪽·값 15,000원〉

한경석 회우 수필집 ‘아니, 벌써..’

한경석회우(전 동아일보 편집부장·전 중앙대학 겸임교수)가 수필집 ‘아니, 벌써 술시잖아’를 펴냈다. 한회우는 내외경제, 조선일보를 거쳐 동아일보에서 20년을 근무한 뒤 퇴직,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지내면서 수필가로 등단했다. 이번에 펴낸 수필집은 4부로 나뉘어 있다.

저자는 “첫째 부분은 신문사를 다닐 때 군사정권을 보며 술을 마실 때의 기억을 더듬어 쓴 수필 「술 권하는 사회」, 두 번째는 일상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을 쓴 「그때가 좋았지」, 세 번째는 할머니, 부모님과 기억을 더듬으며 쓴 「아련한 기억들」, 나머지 한 부분은 한국택시신문에 다닐 때 쓴 「데스크의 눈」”이라고 책머리에 밝히고 있다.

추천작가회 회장 이용재 동원대 교수



는 이 수필집을 “자전적 고백과 인간애의 형상화 표출”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술 권하는 사회’에 나오는 글들은 한 마디로 재미가 있었고 ‘그때는 좋았지’에 나오는 글들은 매우 다양했으며, 글 하나하나가 아주 개성적이고 참신했다. 그리고 「데스크의 눈」에 실린 글들은 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 입장이나 비판적 안목이 두드러져 있어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글이었다고 밝혔다.

한 회우는 〈멋진 편집, 좋은 신문〉 〈기자 아저씨 공정보도가 뭐예요〉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 등의 저서와 수상집 〈인생은 희망이더라〉를 펴낸 바 있다.

〈도서출판 교음사·값 10,000원〉

남시욱 회우 출판기념회 400여명 참석 대성황



남시욱 본회 상담역(세종대 석좌교수·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논설실장·문화일보 사장)의 저서 〈6·25전쟁과 미국〉 출판기념회가 지난 8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동아일보 사우모임인

동우회(회장 김태선)가 주최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철승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수길 전 유엔대사, 장경순 전 국회사무총장,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조혜자씨 내외를 비롯해 마이클 디바인 전 트루먼도서관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손석기 전 동아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태선 동우회장의 개회사, 송원근 아세아 연합신학대 교수

의 독후감,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의 서평, 그리고 박봉식 전 서울대 총장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마이클 디바인 전 트루먼도서관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낭송가이며 전국 시낭송 대상을 수상한바 있는 신다희씨가 축시를 낭독, 눈길을 끌었다. 책의 저자인 남시욱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기자로서 6·25전쟁에 대한 역사를 꼭 한번 쓰고 싶었다”며 “앞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하고 후진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축 大韓言論 창간 38주년

미래형 자동차 기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유라테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이그니션 시스템 제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유라테크는 품질혁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저탄소 고연비차량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GNITION SYSTEM MAKER – YURA TECH**

■Stick Coil ■Platinum Spark Plug ■Iridium Spark Plug ■Spark Plug ■Glow Plug ■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

❖ Head Office & Plant : 070-7878-3500 ❖ YURA R&D Center : 070-7878-1000 ❖ www.yuratech.co.kr

유럽 5小國 아름다움에 취하다

우리 부부가 함께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니게 된 것은,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부터였다. 그 후 26년 동안 아내와 나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1년에 3~5회씩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한 나라만 해도 165개국에 달한다.

특히 12년간 출연했던 KBS-TV 여행 프로그램 <세상은 넓다>를 비롯해 여러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 매스컴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 부부 배낭여행가 제1호’라는 별칭까지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아내와 나는 늘 우리 부부에게 따라 붙는 ‘부부 배낭여행가 1호’라는 말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일단 여행지가 정해지면 주마간산에 그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여행일정을 짰다. 이번에 소개하는 여행도 그렇게 해서 탄생된 20여 일간의 여행이었다.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5개의 작은 나라-산마리노,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공국, 바티칸 시티-들만 모아서 특별한 여행을 계획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산마리노

이탈리아의 리미니라는 작은 도시에서 남쪽으로 2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그곳에 산마리노 공화국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나라다. 수도인 산마리노로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 케이블카로 갈아타야 한다. 그만큼 깊은 계곡 산 위에 세워진 도시로 다른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리베르타 광장에는 정부청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행해지는 의회를 구경할 수 있다. 마을 남쪽은 구 시가지인데 이곳에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다. 1362년에 세워져 공화국 성당으로서는 제일 오래된 성당이다.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한데 관광객은 400만 명이 넘는다. 만나는 모든 이가 타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시민들 모두 친절해 특히 인상에 남는 곳이다.

세금 없는 지상 천국 모나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지닌 모나코는 프랑스의 니스에서 버스로 1시간가량의 거리에 있다. 여권이나 세관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나라지만 시민권을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소문났다. 모나코는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비가 무료이며 병원 진료비도 세금도 없는 지상천국이다. 그러기에 이민 희망자가 많지만 무턱대고 받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 또 모나코이다.

카지노의 천국 몬테카를로.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풍경, 유리처럼 빛나는 대리석 건물들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느낌보다 손님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인상을 준다. 프랑스 혁명 이후 모나코의 지배 왕가인 그리말디가의 재정이 악화되자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카지노다.

1956년 당시 왕위에 있던 레이니에 3세가 할리우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모나코는 환상의 꿈의 나라로 포장되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레이스 켈리와 카지노는 모나코에게 굴뚝 없는 사업의 밑바탕이 된 셈이다.

모나코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수입원이 있다. F1 그랑프리가 그것. 모나코에서는 세 번째의 주 수입원이다.

나라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모나코 국민들은 빈부차가 거의 없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자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범죄 없는 나라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놓인 리히텐슈타인은 면적이 서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빈부의 격차가 없고 범죄가 없는 나라로 꼽힌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편버스를 꼭 타야 한다. 포스트버스라고 해서 버스가 따로 있는데, 취리히에서 출발해 몇 번을



김 현

·본회 회우
·전 KBS 방송연구실장
·한국여행인클럽회장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



산마리노 리베르타광장의 정부청사.



리히텐슈타인 파두츠 산위의 성.



모나코 대성당의 그레이스 켈리 묘지.

갈아타고 사강에 도착한 후 다시 포스트버스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나라는 동화 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수도 파두츠가 가장 변화한 곳인데 나라가 워낙 작다 보니 10여 분이면 중심가를 다 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리히텐슈타인의 다가 아니다. 국민소득의 40% 이상이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출 총액은 독일이 1위지만 1인당 수출액으로 따지면 독일을 10배나 앞선다.

첨단기술 말고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금융이다. 국민소득의 30%를 차지하는데 은행만 16개다. 개인 비밀보호에 엄격하고 고객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

과 노하우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이다. 스위스에서 점점 리히텐슈타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아직은 스위스 의존도가 높다. 공항이 없어 비행기를 타려면 취리히 공항으로 가야하고 외교와 국방도 스위스에 맡겨놓았다. 포도주로 유명한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아이스와인을 한 병 구입했는데, 이 와인은 지금도 우리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한 곳에 모인 안도라 공국

유럽의 유일한 중세식 봉건국가 안도라 공국(왕국보다 한 단계 아래).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다 보니 공식 언어도 카탈루냐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두루 쓰고 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외줄기 산길을 따라가면 깊고 험준한 산 속에 도시가 있다. 바로 안도라 공국의 수도 안도라 라 베야이다. 이곳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온갖 쇼핑물과 부티크, 그리고 호텔들이 밀집한 거리에서 쇼핑백을 든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낮은 세율 때문에 연 1,100만 명이 찾는 쇼핑 천국이다. 신문사와 TV 방송국이 하나씩 있고 대학과 의료보험, 연금제도도 있다. 작아도 갖출 건 다 갖춘 나라다. 게다가 실업률이 제로여서 타지에서까지 이곳에 직장을 구하러 흘러 들어온다.

어떤 민족이든 지리적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인지 안도라 사람들은 피레네 산맥의 격렬하면서도 활기찬 산세를 그대로 닮아 있는 듯하다. 스페인 쪽의 피레네 산맥에는 바스크 민족이 살고 있다. 예수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이냐시오 성인의 고향이 바로 이 바스크 지방의 성지 로올라이다. 이냐시오 성인의 생가와 기념성당이 있는 로올라에는 순례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간 10만여 명이 영성(靈性)을 갈구하며 인구 1만이 안 되는 이 소도시를 찾을 정도라고. 피레네 산맥의 프랑스 쪽에서는 루르드 성모님 발현지가 유명한데, 루르드는 피레네 산맥에서 내려오는 급한 물줄기를 품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한 강의 2/3 정도 되는데 항상 파란 물이 가득 차 있다. 피레네 산맥 안에서 스페인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사는 안도라인들은 그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작지만 큰 나라 바티칸 시티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교황청은 지금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가운데 바티칸 시티라는 소국(小國)으로 유지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자치국이자 가톨릭의 총본산이다.

바티칸은 너무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테지만, 천주교 신자인 나와는 특히 인연이 깊은 곳이다. 1981년 여의도광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가 열렸다. 당시만 해도 군중집회 성격의 모임을 갖지 않았던 천주교가 1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실로 엄청난 일이었다. 그때 내가 그 기념행사의 홍보국장과 총연출을 맡았었다. 다행히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만큼 성공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그 바람에 나는 1984년에 열리게 될 우리나라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행사와 시성식에 교황님을 모시고자 구성된 초청사절단의 일원으로 뽑혀 바티칸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10여 차례 다녀올 만큼 바티칸은 내게 뜻 깊은 곳이다.

바티칸 시티의 또 하나의 명물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다. 성당에는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천장은 돔 형식으로 미켈란젤로의 걸작으로 치장되어 있어 웅장함이 더하다.

성당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성 베드로 광장. 아름다운 분수를 중심으로 주랑이 원형으로 빙 둘러쳐져 있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주변에 테베르 강이 흐르고 있어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 로마군들이 이집트에서 약탈해 와 바티카노 경기장에 세워놓았던 것으로 많은 순교를 지켜봐온 기념비이다. [K]

축 大韓言論 창간 38주년

잘 일어설 수 있게 잘 이겨낼 수 있게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코바코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매운식품 장수에 도움된다

학술지 영국 의학저널(BMJ)이 최근 ‘매운 음식을 즐겨먹는 사람들이 조기 사망위험이 낮다’는 하버드 의과대학 내과 퀴(Lu Qi)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게재해 관심을 끈다. 퀴 교수는 중국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30~79세 성인



이광영

·분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는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더 좋고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매운 음식이 어떤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질병과 사망위험을 줄이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초기 단계의 동물실험에 따르면 신선한 매운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장내 좋은 세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해소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었다고 했다. 퀴 교수는 이러한 동물 실험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효과는 인종과 관계없이 동양인이나 서양인에서 같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capsaicin)은 항산화제의 일종으로 염증에 도움이 되고 진통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 있는데 고추 껍질, 특히 씨에 많이 들어 있다. 고추엔 캡사이신 뿐 아니라 비타민 C도 많다. 매운 맛은 식욕을 촉진하고 대사적용을 활발하게도 한다. 고추 이외의 매운 식품으로 카레와 마늘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식품도 암을 예방하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운 향신료 가운데 특히 신선한 고추를 많이 섭취한 사람에게서 심장병과 제2형 당뇨병에 의한 사망위험이 낮았고 사망위험 감소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운동량 부족,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서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퀴 교수

는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더 좋고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퀴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매운 음식이 어떤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질병과 사망위험을 줄이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초기 단계의 동물실험에 따르면 신선한 매운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장내 좋은 세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해소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었다고 했다. 퀴 교수는 이러한 동물 실험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효과는 인종과 관계없이 동양인이나 서양인에서 같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승만 日망명 시도” 誤報 관련 방통심의위, KBS등 ‘주의’ 징계

언론가 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24일 KBS 1TV ‘뉴스9’이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6만명 규모의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는 “KBS 1TV ‘뉴스9’이 충분한 검증과 반론기회를 주지 않고 일본 야마구치현 자료를 근거로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망명의를 타진했다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자료는 정부 공식문서가 아니라 지방문서일 뿐이며, 비슷한 보도가 20년전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에도 나왔는데 KBS는 추가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한편 KBS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YTN의 ‘뉴스10 2부’에도 ‘주의’ 징계가 내려졌다.

언론재단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9월 18, 19일 이틀간 경북 경주시 더케이리조트에서 ‘2015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미디어교육전국대회는 학교 교사, 미디어교육 강사, 언론사 담당기자 및 장학사 등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다.

관훈클럽 ‘정주영과 남북관계’ 세미나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김창기)은 9월 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금 창립 38주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정주영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북녘땅 내고향

안현태 · 전 KBS 순천방송국장



일촉즉발의 남북대치상태가 일단 해소되고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야기가 나와 설레이기는 하지만 기대는 않는다.

내 고향은 함경남·북도 도경에 자리한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군(郡) 중 하나이다.

삼면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쳐져 있고 동남쪽으로는 창망(滄茫)한 바다가 울창한 송림에 접해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원군 동면 용산리의 마운령(摩雲嶺) 만덕산에 위치한 복흥사 절터 뒤흘에는 국보인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가 있다. 이 순수비가 발견된 것은 1929년.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일이다. 토착인 김영익이 오랫동안 지하에 매몰되었던 것을 겹겹이 싸인 넝쿨땀을 헤치고 발견한 것이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대의 사학자 六堂 崔南善이 답사하여 역사상 중요한 사증으로 실사되자 국내외 역사학자, 문화재 전문가들이 줄을 잇는 러시를 이뤄 내 고장 이원이 크게 세상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순수비는 신라 진흥왕이 북방을 순회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비로서 이 지방이 고구려의 영토로만 알았던 삼국시대에 잠시나마 신라 영토에 속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영토 확장에 전력을 기울였던 진흥왕이 구름도 쉬어간다는 마운령을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렀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높이 1.7m, 너비 44cm, 두께가 30.3cm인 이 순수비는 비문 450자가 18행 25자씩 꼼꼼히 새겨져 있다.

1931년 8월에 순수비보존위원회를 조직하여 비각을 건립하고 보존에 힘쓰고 국보로 지정하기까지 우리 고장사람들의 노력이 컸다.

그러나 8·15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 순수비는 함흥으로 옮겨져 태조 이성계의 유물과 함께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崔南善 선생은 진흥왕 사비(四碑)는 한국이 남긴 금석문(金石文)이며 그 문필이 또한 뛰어났다고 그의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 후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국보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어찌되어 있는지.

산자수명(山紫水明)하기로 비길 데 없는 우리 고향 山河이지만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의 열이 담긴 발자취를 더듬을 길이 막연함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리 고장에 국보 208호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해야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이다.

우리 고장 마지막 역인 함경선 곡구역을 떠나 함북 단천으로 가는 열차는 마운령을 넘을 수 없는 경우 해변가를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바다에 폭 빠진 마운령 해변가 절벽을 바다 위로, 때로는 암벽을 뚫고 가야했다. 열차꼬리가 미쳐 터널을 빠지기 전에 벌써 머리는 다음 터널로 돌진하면서 바위 사이에 지척으로 파도가 부서져야했고 물보라가 바위를 덮어버리는 광경을 되풀이 하던 아찔한 절경.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단천역으로 달려가던 모습이 어제인듯 또렷하다. 이원군 동면 곡구는 험준한 마운령을 넘어 오고 가는 파발과 필마가 쉬어가는 객주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점점 가물가물 멀어져만 가는 내 고향과 얼굴들. 내 나이 90을 향해 가고 있는 탓인가.

허겁지겁 고향집을 떠날 때 길게 잡아 1년이면 돌아오겠거니 했던 것이 어허! 어언 60여년.

어이할거나. 이산가족 상봉도 시답지 않은 소리 같아지는 지금이다.

‘재외동포저널’ 창간

재외동포저널 창간호가 나왔다.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상담역(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이 재외동포저널을 창립,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재외동포저널’을 발행한 것이다.



지난 8월 15일자로 나온 재외동포저널은 안병준 본회 회수가 편집인을 맡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이성춘 논설위원, 이형균 부회장은 편집고문으로 참여했고 6페이지에 걸쳐 대한언론인회가 상세히 소개돼 있다.

김 호 원로회우 별세

김호 원로 회우가 지난 8월 5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1925년 1월 28일 서울서 출생하여 1950년 서울신문 교정부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국제신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기사를 거쳐 한국일보 경향신문 교정부장, 서울신문 교정부장, 신아일보 중앙일보 창간 참여 교정부장, 중앙일보 편집부 국장 겸 교정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엔 한국교열기자회 고문, KBS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 도서출판 일조각 편집위원, 일간공업신문 편집위원,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는 8월 6일 고인의 빈소에서 신우식 고문, 홍원기 명예회장, 김은구 회장, 그리고 김성배 감사, 정운중 이상호 이사와 고덕환 김윤덕 나용경 조덕일 회우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故 김호 부장 영전에

신우식(본회 고문)

편집 부국장을 지내셨습니다만 여기서는 친숙한 호칭대로 김 호 부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호 부장은 서울 토박이로서 1925년 태어나서 교동보통학교(오늘의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송문중학교, 그리고



신우식 본회 고문이 조사를 읽고 있다.

국학대학전문부를 거쳐 이 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바깥출입을 못하셨습니다만 이 100세 시대에 조금만 더 사셨으면 그 연세를 채울 수 있으실텐데 너무 억울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김 부장은 6·25 전쟁이 나던 1950년 서울신문 편집국 교정부 기자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어 부산의 국제신보, 조선일보, 그리고 서울신문에서는 문화부 기자, 교정부 기자를 거치셨습니다. 1956년 한국일보 교정부장, 경향신문 교정부장, 경향신문이 폐간되자 조선일보 교정부 차장, 다시 경향신문 교정부장, 1963년 서울 신문 교정부장, 그리고 1965년 창간된 신아일보 교정부장, 그 해 9월에 창간된 중앙일보 부국장 겸 교정부장으로 1981년 정년퇴직하셨습니다.

말하자면 1세대 교정부 기자 교정부장이신 셈입니다. 그 뒤에도 출판사 일조각의 편집위원, 일간공업신문의 편

집위원으로서 교열업무를 꾸준히 맡으셨습니다.

소생과의 인연은 대한언론인회보(오늘의 '대한언론')에 제가 한동안 맡고 있던 '대신 바로 잡습니다'를 김 부장이 10년 넘게 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김 부장은 '대한언론인회 30년사'에서 “‘대신 바로 잡습니다’ 10년의 보람”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도하 11개 신문(경향 국민 매일경제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한국경제에서 오자, 오기를 찾아냈다. ‘한겨레’가 빠진 것은 그 무렵 전혀 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난을 전담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1월 1일자(회보97호)부터 2006년 12월 1일자(회보247호)까지 10여년에 걸쳐 1,600여개의 잘못된 것을 찾아냈다. 14층의 대한언론인회 사무실과 13층의 언론도서관을 이용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시기를 삼가 기도드립니다.

최상목 원로회우 별세

최상목 원로회우가 지난 8월 15일 급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34년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하여 언론계와는 1960년 조선일보 교열부기자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 뒤 1963년 동아일보 교열부로 옮겨 1992년 7월 부국장 겸 편집위원으로 정년퇴임했다. 퇴임 후엔 공보처 정부간행물 저작소 전문위



원으로 활약했다. 한말글 연구회 회원으로, 또 대한언론인회 자격심사위원회 간사일을 맡아 보았다.

대한언론인회는 8월 16일 정오 김은구 회장을 비롯, 한말글연구회, 대한언론인산악회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故 최상목 선배 영전에

이병대(본회 회우)

오호애재(嗚呼哀哉)라!

건강하시던 선배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유명(幽明)을 달리 하시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문안전화를 드렸더니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시며 “곧 괜찮아 질테니 만나자”는 말씀이 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병인(病因)을 찾지 못하다가 임파선암 임을 발견하고 정확히 10일 후 가시다니 너무나 허망하고 아쉽습니다.

선배님은 한마디로 멋지게 한평생 살으셨습니다. 수신(修身)에 엄격하고 철저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몸을 낮추셨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술선 했습니다.

나이 어린 후배에게 반말이나 하대(下待)를 하지 않고 예(禮)를 갖추셨습니다. 모두를 존경 했습니다. 특히 제가(齊家)에 성공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초년기인 60년대에 도시락을 갖고 출근하는 등 절약을 해서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老後)를 보낼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3남매 모두 나라의 동량으로 훌륭하게 성장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춰 놓고 휴런 떠나시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선배님은 언론인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



김은구 본회 회장이 조문하고 있다.

하신 것을 비롯해서 산악회 등에서도 지워지지 않을 족적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부인과 사별한 동료에게 “밥맛이 없더라도 먹어야 산다”고 하시면서 “밥 살테니 나오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와는 동아일보사에서 만나 50년 넘게 가까이 모셨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이야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더니, 색즉시공(色卽是空), 생사불이(生死不二)란 여취가 환영(幻影)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최 선배님!

선배님이 좋아하시던 화식집 ‘옛골’과 그 옆 옛 다방 커피집에서의 즐거웠던 만남도 이제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업(業)이 있다면 이타(利他)행으로 사셨던 선배님은 분명히 명복(冥福)을 받으실 겁니다.

극락왕생(極樂往生)하소서! 오호통재(嗚呼慟哉)!

故 이해복 고문 2주기 추모

故 이해복 고문의 2주기 추모예배가 8월 1일 오전 11시 30분 중식당 동보성 특별실에서 엄수됐다.

고인의 조카인 김춘배 목사와 영락교회 최경영 목사의 집전으로 진행된 추모식은 찬송과 기도 성경 봉독, 그리고 영락교회 한마음 찬양대의 찬양, 장남인 이충원 변호사의 인사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미망인 등 가족과 교회 성도들, 대한언론인회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 생전의 고인을 기리고 추모했다.

추모식에는 대한언론인회 신우식 제재형 고문, 홍원기 명예회장 그리고 강승훈 고수균 김광희 김두근 김준하 김은구 맹태균 박용윤 오전식 이병대 회원이 함께 했다.



故 이해복 고문 2주기 추모예배에 참석한 유족과 본회 임원들.

회우동정 개나다순

‘동해지명과 해양명칭’ 국제세미나 참석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동해연구회 고문·사진

左)회우·문명호(전 문화일보 논설 주간·사진 右)본회주필= 8월 24~2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21회 동해지명과 해양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 김진현 회우는 종합평가 및 인사말을, 문명호 본회주필은 종합토론을 맡았다.

사회민주당 창당 발기인대회



박범진(사회민주포럼 공동대표)회우= 8월 15일 오후 3시 서울 흥사단 대강당에서 사회민주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세계일보 객원논설위원



박정진(전 한양대 객원교수)회우= 최근 세계일보 객원논설위원으로 위촉돼 ‘박정진의 淸心淸談’ 칼럼을 연재 중이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대상 시상식



배병휴(경제풍월 발행인)회우= 8월 2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의 집’ 취선관에서 제6회 ‘한국의 기업가정신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박종규(주)KSS해운 명예회장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봉두완(통일TV방송 이사장)회우= 8월 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또한 8월 21일자 ‘백세시대’ 신문 5면에 ‘노인 귀찮게 생각하면 나라 망해--’ 주제로 특별 인터뷰.

‘탈이념’ 국정 한국사교과서 주창



신경식(헌정회 회장)자문역= 8월 18일자 조선일보 A29면 발언대 난에 ‘탈이념-국정 한국사 교과서 만들라’ 제

하의 글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뜻있는 애국시민들이 교육현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공명정대한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온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영문판 ‘이승만 생애’ 뉴욕서 출판기념회

안병훈(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사진 左)회우·인보길(이승만포럼 회장·뉴데일리 대표·사진 右)부회장=



지난 8월 15일 미국 뉴욕 플러싱의 금강산연회장

에서 동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건국정신을 다룬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생애’(도서출판 기파랑)의 영문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고령사회 생활의 지혜’ 세미나



이광영(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회우= 9월 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고령자 스스로의 삶 재조명을 위한 제언-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의 지혜 10가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무실 이전



임덕규(영문월간 외교Diplomacy 회장)회우= 지난 8월 8일 서울 중구 필동1가 39-1 국제빌딩 405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사무실 전화 02-777-3370 Email주소 diplolimb@yahoo.com

본회 후생복지기금 위원회 열려

대한언론인회 후생복지기금위원회(위원장 김의수)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 의료비 청구심사 등 현안문제를 심의 통과 시키고 복지기금 이자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 운영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금리 급락에 따른 비상대책으로 당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초긴축으로 재정을 운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특히 예산 절감 대책으로 나온 의견 중에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현행 ‘자부담 100만원 이상 50만원 지원’을 ‘자부담 200만원 이상 50만원 지원’으로 조정하고 경조비 지원도 금리 인하에 대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문제는 다음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토의할 예정이다.

회우 경조사

결혼

박진열 회우= 8월 22일(토) 오후 6시 서울 그랜드앰베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딸 결혼

윤익한 상담역= 9월 12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대교수회관에서 장남 결혼

이기중 회우= 9월 6일(일) 1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장녀 결혼

본회 산악회 9월 山行 소무의도로 갑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인천 앞바다에 자리한 아름다운 작은 섬 소무의도로 9월 산행을 떠납니다.

소무의도는 해안절벽과 기암괴석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변 트레킹 코스와 섬 정상인 안산을 거쳐 명사해변으로 이어지는 아기자기한 바다누리길로 유명합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산행에는 건강포럼(회원사업위원장 이보길) 회우들도 함께 합니다.

- 아 래 -

- 산 행 지 : 소무의도(인천시 중구)
-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요일) 오전 10시 10분
- 집합장소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7번 출입문 버스승차장
- 회 비 : 2만원
- 준 비 물 : 등산장비 간식 식수
* 경로 해당자는 신분증 지참요망
- 산행문의 : 이상호 회 장(010-3855-8624)
나용경 총 무(010-2691-0084)
황귀근 산행대장(010-2266-3169)

대한언론인회산악회

특별협찬금 감사합니다

한영섭 원로위원회 위원장이 협찬금으로 100만원을 보내왔다.

연회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고수웅(15) 김상수(15) 김윤곤(14, 15) 박진열(13,14,15) 백환기(15) 심재복(16) 손기상(15) 조희곤(15)

사우회 소식

고 장기봉 사주 7주기 추도식



신아일보

신아일보 사우회(회장 김철호)는 지난 8월 28일 12시 30분 고 장기봉 선생(신아일보 창업주) 7주기를 맞아 신아일보 본관 고인의 흉상 앞에서 김길홍, 이금규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신아 사우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가졌다.(사진)

한국경제 확장운동 동참

한국경제

한국경제 사우회(회장 최귀조)는 최근 환경사우회보 9호를 발행했다. 한국경제 확장운동에 사우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머릿기사를 비롯 고문단 간담회, 새만금 문화 탐방(2면), 산악회 행사일정(10월 1일 아차산 등반)소식이 실렸다. 신문확장운동은 ‘어려운 때일수록 회우들이 힘을 모아 한국경제신문 확장운동을 위한 회우 할당제 등 본사 발전에 기여하는 사우회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고문단 결의에 따라 비롯된 것이다.

단파방송청취사건 자료관 참배

KBS

KBS사우회(회장 전 봉찬)는 지난 8월 1일자로 사우회보 160호를 발행했다. ‘선배방송인들의 항일 의거와 정신을 기리

다’ 제하의 머릿기사에서 ‘사우회 회장단과 이사진, 사무국요원 등 23명이 7월 24일 서대문형무소 역사전시장 내 민족저항실의 ‘단파방송 청취사건 자료관’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1942년 해외단파방송으로 상해임정과 독립군의 활약상,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일본군의 패전 전황 등을 비밀리에 수신, 전파하다 옥고를 치른 선배방송인들의 항일기록 등을 두루 돌아본 것이다.

사우회장배 당구대회 개최

SBS

SBS사우회(회장 김수웅) 당구동호회(회장 박찬근)는 8월 24일(월) 오후 3시 교대 당구장(교대역 9번 출구)에서 SBS사우회장 배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김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축 大韓言論 창간 38주년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세번째 이야기

푸른 꽃은 푸르러서 예쁘고
붉은 꽃은 붉어서 예쁩니다
가을은 알록져서 아름답고
겨울은 빛이 바래 아름답죠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大韓言論

사람이 미래다





大韓言論 창간 38주년

9년 연속 1위
세계판매
2006년~2014년
IHS Display Search 기준
세계TV 판매점유율 1위

‘이제 예전 TV는 못 보겠다’

보이지 않던 컬러
보이지 않던 디테일
SUHD가 아니면 몰랐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SUPER TV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델명 : UN65JS9000F |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

Welcome to SUPER TV

삼성 SUHDTV^{4K}

나노 크리스탈 기술만의 내추럴 컬러 Super Color | 풀 HD보다 최대 4배의 디테일 Super UHD | 커브드의 압도적 몰입감과 편안함 Super Curved

SAMSUNG